

# 실업뉴스



The Ontario Korean Businessmen's Association News  
2018년 11월 7일 수요일 제763호



협회 정기총회장을 방문해 기념촬영을 한 온주 정부 조성준 장관과 회원들 (2018.10.31)

**OKBA와 친구해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OPEN

돋보기 검색창에서 'OKBA' 검색 후 플러스 친구 추가하세요.

생생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검색창에 OKBA를 입력하세요.

친구추가 버튼을 클릭하세요.



# 달콤한 휴식

신제품

- 초콜릿 브랜드 1위
- KIT KAT, 해당 업계의 선두를 차지하며 14% 성장\*
- 3가지 맛 출시



자세한 내용은  
도매업자에게  
문의하세요!



## 버블에서 ...느껴지는... 마성의 맛

- 시장 진출 기회 증대
- 더욱 세련된 모양
- 속 안을 가득 메우는 트러플

\*Nielsen TL KIT KIT L12W p/e 2015년 12월 12일  
상표 소유 / PROPRIÉTAIRE DES MARQUES: SOCIÉTÉ DES PRODUITS NESTLÉ S.A., VEVEY, SWITZERLAND / SUISSE.  
라이선스 소유자 / LICENCIÉ: NESTLÉ CANADA INC., NORTH YORK, ON M2N 6S8.





# OKBA

Ontario Korean Businessmen's Association

## ■ Publisher

**Jae Gyun Shin** (신재균)  
Tel (416)789-7891(ext.70)  
e-mail.sjg0061@gmail.com

## ■ General Manager

**Don Cha** (전무 차동훈)  
Tel (416)789-7891(ext.30)  
e-mail.doncha@okba.net  
▶ 대정부활동 및 실무 총괄

## ■ Business Manager

**Sunny Chon** (실장 전승원)  
Tel (416)789-7891(ext.21)  
e-mail.sunnyc@okba.net  
▶ 사업개발  
▶ 공급업체 상담  
▶ 행사관련 사항  
▶ 회원등록

## ■ Business

**Brian Lee** (이주녕)  
Tel (416)789-7891(ext.26)  
e-mail.brianjn1108@okba.net  
▶ 사업개발  
▶ 공급업체 상담  
▶ 행사관련 사항  
▶ 회원등록

## ■ Accounting

**Sei Hwan Kim** (김세환)  
Tel (416)789-7891(ext.24)  
e-mail.accounting@okba.net  
▶ 리베이트  
▶ 대외 A/P, A/R  
▶ 실험사무 관리

## ■ Reporter

**Kwangil Kim** (실장 김광일)  
Tel (416)789-7891(ext.23)  
e-mail.tedkim@okba.net  
▶ 실험뉴스 취재  
▶ 기사제보  
▶ 홍보사항

## ■ Design

**Mi Young Hyun** (현미영)  
Tel (416)789-7891(ext.22)  
e-mail.mimihyun@okba.net  
▶ 광고 / 편집 디자인  
▶ 인쇄 및 홈페이지 관련  
▶ 광고문의

## ■ Website

www.okba.net

Publication Mail Agreement No:41140510

Return Undeliverable Canadian Address to:  
Ontario Korean Businessmen's Association  
175 The West Mall, Etobicoke, ON M9C 1C2  
Tel.(416)789-7891 Fax.(416)789-7834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기로는 올해가 두번째인 **세계한상대회(2018.10.23)**

# C O N T E N T S

04 ~ 05 | 이사수 감원 정관, 정기총회 통과

06 | 2018 韓商대회 인천 송도에서 성료

07 ~ 09 | Bill 36 발효, 베이퍼 관측 “부분 허용”

10 ~ 11 | 담배 관련 종업원 교육 프로그램 시행

12 ~ 14 | 전자담배 관측 허용 뒷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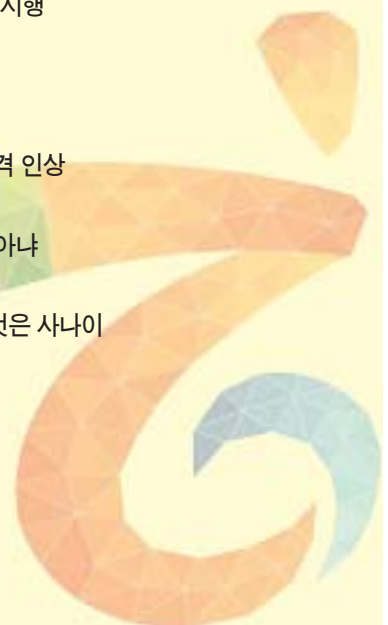
15 | 사푸토 실크 시리즈 11월 4일부터 가격 인상

16 ~ 19 | 구인난 악화로, 편의점도 예외아나

20 ~ 21 | 교양 상식 : 49년만에 간첩 누명벗은 사나이

22 | OKBA 지구협회장 전화번호  
2018년 협회 주요 사업

23 | Directory



# 총회장 찾은 조성준 장관, 열렬한 환영 받아 이사수 감원 정관, 정기총회 통과

본부협회 정관이 4년만에 개정됐다. 86년에 1차 개정이 있은 후 이번까지 총 16차례다. 이번에도 이사수와 관련한 것이다. 최근의 개정을 보면 2009년 개정 때는 이사수를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됐고 2014년에는 이사 수를 감원하는 것으로 개정됐는데 이번 개정에서 다시 이사수를 더 줄이도록 했다.

현 정관에는 12명의 이사를 총회에서 회원들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12명을 절반으로 줄여 6명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 줄어든 6명도 3개 지구협의회(GTA, 남서부, 동북부)에서 각각 2명씩 추천하고 총회에서 인준하게 함으로써 직선제를 폐지토록 하고 있다. 이는 이미 지난 10월 11일 열린 예·결산 정기이사회에서 통과된 안이었으며 총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게 된 것인데 원안대로 확정된 것이다.



다만, 정기이사회에서는 인준을 이사회에서 하는 것으로 했으나 이는 실무 착오이며 총회 인준으로 수정해줄 것을 양해하고 표결에 부쳤다.

수정안도 있었다. 일부 회원들은 6명 감원은 좋으나 종전대로 총회에서 직선하자는 안이었다. 두안을 놓고 벌인 거수표결은 원안이 30명, 수정안이 17명이었다. 다른 개정 내용들은 모두 수락했기 때문에 앞으로 본부협회의 부회장과 부이사장은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든다. 3명의 감

사 또한 총회에서 직접 선출하는 대신 지구협의회에서 각 1명씩 추천하고 총회에서 인준받도록 했다.

내부감사와 외부감사 보고 내용도 정기이사회때와 동일했으며 결산 및 예산도 변동이 없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오히려 논쟁은 예상치 못한 대목에서 벌어졌다. 개회 인사말을 빌어 신재균 회장이 정기이사회때와 마찬가지로

SIGN UP WITH MONERIS  
AND GET **PREFERRED RATES**  
THROUGH THE OKBA MEMBERSHIP.

moneris.com/associations  
1-877-789-5335

**Moneris**  
BE PAYMENT READY

## 실업인 협회 단체보험

KMI Brokers Inc.

집/자동차: 기준보험료 대비 **15%~20%**할인  
비즈니스: 담배도난 무제한 보상 가능

**오중찬 : C) 416-602-7083**

jc@kmibrokers.com



가지로 조합의 과거에 관한 비판적인 언급을 하자 일부 회원들로부터 “협회 총회자리에서 조합이야기는 하지 말라”는 반대 의견이 나왔다. 이에 대해 또 다른 회원들이 “못할 이유가 뭐 있느냐”, “인사말인데 방해하지 말고 그냥 들으라”고 맞대응을 하며 장내가 크게 소란스러워졌다.

회장의 인사말이 어렵사리 끝나고 이사장 인사말 시간에 이성호 이사장은 품위를 지키는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갈등은 회순채택에서도 조짐을 드러냈다. 기타토의에서 다루기로 한 ‘정관개정 의결을 제일 먼저 하자는 요청이 나왔고 원안대로 진행하자는 의견과 지리한 대립을 이어가다가 마침내 거수 표결까지 갔다. 원안이 28명, 회순변경이 17명으로 나와 정관개정안은 본래대로 마지막 순서에서 다뤘다. (52명 재석)

정관 개정을 놓고 논의가 거의 마무리돼 가던 4시 20분경에 예정했던대로 온타리오 주정부 노인복지부 조성준 장관이 보좌관 3명과 언론홍보담당 공무원을 대동하고 총회장에 나타났다. 재선에 도움을 준 협회에 감사의 인사와 격려를 하기 위한 예방이었다. 조 장관은 여러 차례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협회 회원들에게 깊이 감사한다면서 오랜 과거에 자신이 협회를 위해 동분서주했던 사건들을 추억하기도 했다. 장관은 또, 지난 자유당 정권의 실책에 대해서도 많은 시간을 들여 맹공을 쏟아내면서 대표적인 장애물로 Bill 148을 들었다. 소자영업자에게 불이익만 안기고 온타리오 전체 비즈니스와 경제에 걸림돌이 되는 악법이므로 이를 폐지하고 “비즈니스 프렌들리”한 새로운 법인 무바(MOOPA ; Making Ontario Open



for Business Act)를 통과시키려고 준비 중이니 협회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연설이 끝나고 간단히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으며 말미에 회원들과 합동 기념 사진을 찍었다. 장관은 총회장을 떠나 회장 집 무실에서 임원들과 더 담화를 나눴다.

한편, 이날 정기 총회에서는 조만간 정년퇴임하는 차동훈 전무에 대한 감사패 증정식이 있었다. 회원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행사가 정기총회이기 때문에 이 모임을 빌어 감사패를 전하게 된 것이다. 회의는 1시 30분에 시작해 5시 30분에 종료됐으며 개회 성원은 재적 정회원 1,001명 중 60명이었다. (총 참석 인원은 68명) ■

# 제10회 TouchCash Inc. ATM & POS 장학생 모집



올해도 상급학교(College, University)에 진학한 우리 한인실업인협회 회원의 자녀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 제10회 Touch Cash ATM & POS 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Touch Cash ATM & POS에서는 각 20개 실업인 지구협회 및 Sudbury 지역을 통해서 장학생을 지급하오니 각 지구협회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설치  
365일 친절! 24시간 신속!  
최대이익 보장



서류 제출 방법 \* 별첨: Application Form 1부

By Mail: Touch Cash Inc. ATM & POS  
820 Denison St. Unit #3, Markham, ON L3R 3K5  
By EMail: [accounting@touchcash.ca](mailto:accounting@touchcash.ca)  
By Fax: 905-513-0919

### 1. 대상 및 기준

College나 University 진학생 중 각 지구협회가 추천한 1인

### 2. 장학금

1인당 상패 및 장학금 \$700.00

### 3. 구비서류

장학생 선발 양식 (별첨 양식) 1부

### 4. 선발마감

2018년 11월 16일 (금요일)

### 5. 시상

각 지구협회 연말 Party 또는 자체 행사에서 진행



TouchCash ATM POS

문의  
전화: 905-513-8843, Toll Free: 1-866-391-3950

이 정착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행사는 해를 거듭하며 프로그램이 다양해 지고 실속이 더해졌다. 초기 친목도모 차원에 머물던 행사가 실질적 비즈니스로 연결돼 모국 기업과 해외 동포기업 사이의 무역, 투자 거래 성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다. 또 주최측도 리딩CEO포럼, 차세대 경제 리더 포럼 등 포럼을 세분화시키고 있고 금융, 유통, 패션 등 산업분야 별 비즈니스 포럼도 개최하며 업계의 최근 동향이나 이슈에 관한 전문가들의 패널 토의가 이루어진다.

수년 전부터는 실리적 차원의 1대 1 비즈니스 미팅 기회도 제공하고 있고 기업 전시회, 투자환경 설명회가 별도로 진행되는가 하면 행사가 서울이 아닌 지역 지자체에서 개최될 경우 지자체 맞춤형 특별 설명회나 특강이 열리기도 한다.

협회에서는 본부협회 신재균 회장이 행사에 참가했다. OKBA회장 겸 최근 겸직하게 된 캐나다한인상공실업인총연합회(UKCIA)회장으로 참석하게 됨에 따라 위상도 높아져 대회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운영위원회는 이미 지난 4월 내년 한상대회 개최지를 전남 여수로 결정했으며 세부 추진 계획 수립을 위한 모임을 베트남 하노이에서 가지기로 했다.

신회장은 대회 참석을 위한 방한 기간에 협회 사업에 도움이 될 제후사 발굴을 위해 분주히 일정을 보내면서 이전에 한상을 통해 제후관계를 맺어 주얼리 사업을 하게 된 씨드아이글로벌사 대표와 신상품 공급 및 교환조건 개선에 대해서도 유익한 합의를 맺었다. 또, OKBA프로그램스토어사업의 POS시스템 공급 및 관리 제후사인 '진승'(진승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대표와도 문제점 개선을 포함한 전반적인 논의를 가졌다. 아울러 전임 UKCIA임원단들과 향후 총련 발전 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협의도 있었다. ■

## 신 회장 캐나다 대표로 대회 운영위원 선임

# 2018 韓商대회 인천 송도에서 성료




제 17차 세계 한상대회(世界 韓商大會 ; The World Korean Business Convention)가 지난 10월 23일(화)

인천광역시 송도 컨벤시아(Songdo Convensia)에서 개막식 행사를 시작으로 2박 3일간의 일정을 성대히 마무리했다. 해외 동포 경제인들과 모국 기업인들이 한 곳에 모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보 교환과 비즈니스 활성화에 한민족이 함께 힘을 모으자는 취지하에 2002년에 첫 행사를 치른 후 벌써 17년째를 맞이했다.

금년 행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개막식에 직접 참석해 환영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대회의 무게가 더 실렸다. 세계적인 무한경쟁시대와 국가간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한상의 연대와 결속이 더욱 굳건해져야 할 것이라는 요지의 연설이었다. 열일곱 차례 한상 대회에서 개막식에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기는 이번이 두번째다. 첫번째는 2007년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린 제 6차 한상대회에 고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해 환영사를 한 때였다. 그밖에는 국무총리가 참석하거나 대통령의 영상 축하 메시지가 있었다.

행사는 매년 10월에 열리며 외교부 산하 공공기관인 재외동포재단과 매일경제신문사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2002년 첫 대회때는 28개국 1,000명이 채 못되는 참가자로 시작했던 것이 해를 거듭하며 해외동포 기업인들의 관심속에서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져 올해는 60개국 5,000여 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세계 3대 민족 경제네트워크로 유대인들에게 유상(猶商), 중국인들에게 화상(華商), 인도인들에게 인상(印商)이 있듯이 한상(韓商)이라는 말



## 아담유 합동 법률그룹

Adam Yoo Stigler Nguyen & Associates

각 분야 전문 변호사와 법무사들이 여러분의 법률 문제를 최선을 다해 해결해 드립니다.

|  |   |  |
|--|---|--|
| <p style="background-color: #0070c0; color: white; padding: 2px; border-radius: 5px; font-weight: bold;">교통사고, 개인 상해</p> <p style="font-size: small;">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교통 사고 후유증에 관한 최대 보상, 낙상, 정부 과실 보상 소송</p> | <p style="background-color: #0070c0; color: white; padding: 2px; border-radius: 5px; font-weight: bold;">교통위반 티켓</p> <p style="font-size: small;">과속, Stunt Driving, 무보험, 신호 위반, 뺑소니 등 모든 교통법규 위반</p> | <p style="background-color: #0070c0; color: white; padding: 2px; border-radius: 5px; font-weight: bold;">형법</p> <p style="font-size: small;">음주 운전, 폭행, 절도, 사기, 마약(Drug) 보석(Bail) 등 모든 형법 위반</p> |
|--|---|--|

- \* 형법
- \* 소액재판
- \* 복권 판매법

- \* 가정법
- \* 세권, 세입자 분쟁
- \* 담배 판매법

- \* 민사소송
- \* 주류 판매법
- \* 회사 설립

\* O.D.S.P. 신청(Ontario Disability Support Program) 1년 이상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시 청구 가능.

“강력한 실력, 오랜 경력, 섬세함으로 모든 법률 문제 해결”

변호사 : Leonard Stigler, Mai Nguyen, Shiv Passi  
법무사 : Adam K. H. Yoo, David Song, Mark Ginz  
Kate N. Han, Hassanein Bhaloo, Earl Francis Dacara



T : 416.739.8887 / 647.891.8867 / F : 416.739.7559  
1018 Finch Avenue West, Suite #100, Toronto



온타리오주의 법률개정안 'Bill 36'이 마침내 부총독의 재가를 얻은 지난 10월 17일부로 발효에 들어갔다. 이 법률개정안은 연방의 마리화나 합법화 조치에 따른 주정부 차원의 관련 후속 정비 작업의 일환으로 주 관련법률과 시행령의 개정안을 수립한 것이 골자이다. 여기에 더해 그간 편의점업계를 중심으로 첨예한 이해관계를 내포해온 베이프(vape)제품 취급에 관한 개정안까지 아우르고 있어 편의점 업계쪽에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법안 개정이었다.

Bill 36은 의회에서 9월 27일 1독회, 10월 4일 2독회, 10월 17일 3독회를 거쳐 같은 날 부총독 재가(Royal Assent)를 얻었고 발효는 부총독의 재가를 얻은 날 동시에 이뤄지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관련 규정들은 이날을 기준으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보면 된다. 마지막 독회와 부총독 재가에 이어 발효까지 전부 같은 날 이뤄진 것은 연방이 발표한 10월 17일의 마리화나 합법 판매 일정에 맞추기 위해 서둘렀음을 짐작케 한다.

Bill 36의 골자를 표로 정리한 후에 편의점 업계의 관심사인 전자담배 관련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 〈Bill 36〉

#### ■ 개요

마리화나와 관련한 복수의 기존 법률 개정과 1개의 새로운 법률 제정 그리고 베이프 제품과 관련해 온타리오담배관리법(Smoke-Free Ontario Act) 및 시행령의 개정안을 담고 있음. 총 4개의 분야 (schedules) 로 구분함.

## 전자담배, 일반 담배처럼 가리고 팔아야 10/17 시행

## Bill 36 발효, 베이퍼 판촉 “부분 허용”



# 1 SOLUTIONS

DATA CORPORATION



POS, ATM, Debit and Credit Card Services Company



**FULL INTEGRATION SYSTEM**  
일체형 연동 시스템

Tel **1.888.554.7355**  
www.1solutions.ca / email : info@1solutions.ca

## P / O / S S / Y / S / T / E / M

- 데빗 단말기 연동  
Debit terminal device integration
- LCBO Software 지원  
LCBO Software Support
- 한국에서 설계 제조 및 테스트 됨  
Designed, manufactured, and tested in Korea
- 모든 장비, 소프트웨어, 트레이닝, 설치를 총 \$2500  
Fully equipment, including software, training, and installation for only \$2500
- OLG 온라인, 스크래치 티켓, Winning Ticket, 바코드 형식 시험  
OLG Online, Scratch Ticket, Winning Ticket Barcode System Implementation
- 모든 영업 운영과 경영을 포스로 가능  
All sales operations and store management are made possible through our POS system
- 클라우드 서버 사용  
Cloud Server to download and upload data
- POS System을 이용해 매장의 모든 정보를 "Back Office" 소프트웨어에 저장  
POS System to store all the information of the store in "Back Office" software
- 세계에서 제일 인정받는 클라우드 서버의 보안성 보장과 비교할 수 없는 서버 속도  
We use world's most respected cloud server provider to ensure data security and unparalleled server speed

### Credit Card

*The best rates for the best customers*

| Business Type          | Discount Rate | Transaction Fee | Brand Fee | Non-Qual |
|------------------------|---------------|-----------------|-----------|----------|
| Convenience Store      | 1.40%         | No Charge       | 0.1%      | 0.3%     |
| Other Type of Business | 1.40%         | No Charge       | 0.1%      | 0.3%     |

### Debit Card

| Business Type          | Chip & Swipe | Tap & Flash |
|------------------------|--------------|-------------|
| Convenience Store      | 3.65 cent    | 5.65 cent   |
| Other Type of Business | 3.65 cent    | 7.15 cent   |

- NO STATEMENT FEE (무료 우편 또는 EMAIL 발송)
- NO HIDDEN CHARGES
- NO CONTRACT
- SIGNING BONUS \$300
- DEBIT MACHINE 문제 발생시 - TECH SUPPORT 24/7
- YOUR SATISFACTION IS OUR GOAL

Office **905.560.4511** / Fax **1.888.554.0409**



|            |  |
|------------|--|
| Schedule 1 | 대마관리법(Cannabis Act) 및 관련 법률 개정                         |
| Schedule 2 | 대마취급허가에 관한 법률(Cannabis Licence Act) 제정 + 일부 관련 법률 개정   |
| Schedule 3 | 대마소매업관리공사법(Ontario Cannabis Retail Corporation Act) 개정 |
| Schedule 4 | SFOA개정 + 도로교통법(Highway Traffic Act) 개정                 |

스케줄 1, 2, 3은 이미 마리화나 소매업 판매와 관련해 핵심시안은 자세히 소개한 바 있으므로 실험뉴스 및 협회 웹사이트 관련 기사를 참고토록 하고 본 면에서는 스케줄 4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사안인 전자담배 관련한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Bill 36의 '스케줄 4' 부분만 따로 떼어 편의점 업계에서는 Bill 36을 'Ontario Vaping Regulations'라고도 부르는데 정확한 명칭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보면 틀린 표현도 아니다.

### <Scheule 4 : Ontario Vaping Regulations>

보다 정확히 개념을 정리하고 세부 소개에 들어간다. Bill 36의 스케줄 4에서 규정한 온주담배법SFOA 개정안은 결국 시행령(439/18)으로 구체화되는데 이 시행령은 중전의 시행령인 268/18을 개정한 것이다. 따라서 법률인 SFOA와 시행령의 개정 부분을 아울러 핵심적인 대목만 소개한다. 이하 내용은 정부 사이트의 내용을 기초로 한 것이며 편의점에 해당되는 사항만 간추린 것이다.

#### ● 담배(Tobacco) 개념의 범위

- 일반담배(cigarettes)
- 시가(cigars)
- 소형시가(cigarillos)
- 파이프담배(pipe tobacco)
- 쉐럴형전자담배(heat-not-bum tobacco)
- 기타 특별 담배(씹는 담배, 코담배 등 주로 無煙담배들)

\*주의할 점은 기존 RBH의 아이코스(iQOS), 임페리얼의 글로(glo), JTI의 플룸 등 열을 가해 연기는 나지만 타지는 않는 쉐럴형 전자담배를 '베이퍼'(vapour)로 분류하지 않고 'tobacco'로 분류한다는 점이다. 개념적으로는 전자 방식보다는 일반 담배 태우는 모습과 유사하다는 것에 더 중점을 뒀 토바코로 분류한 것으로 보인다.

#### ● 베이퍼 제품의 범위

- 전자 담배 및 구성파트
- 액상 (e-liquid, e-juice)

- 액상 파드(e-liquid pods) \*한번 장착해 반복 소비하는 간편한 형태 액상 공급 장치.

#### ● 연령확인

담배와 베이퍼는 모두 19세 이상의 연령만이 구입 가능하며 따라서 소매업소에서는 베이퍼 제품도 담배와 동일하게 연령확인을 해야 한다. 25세 미만으로 보이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해야 한다.

#### ● 전시금지

담배를 취급하며 베이퍼도 동시에 취급하는 일반 소매업소, 대표적으로 편의점은 베이퍼를 담배와 마찬가지로 진열해서는 안된다. 손님 눈에 띄지않게 가려진 상태로 보관해야 한다. 담배와 동일하게 베이퍼를 취급해야 한다는 것은 또한 다음과 같은 것도 지켜야 한다는 의미다.

- 손님이 구입 전에 베이퍼 제품을 만져보거나 바라보는 등 감각적 접촉 행위가 있도록 해서는 안된다.
- 재고 확인, 재고 채워넣기 등의 행위로 인해 잠시나마 손님에게 제품이 노출되어서는 안된다.

#### ● 허용된 보관공간

베이퍼 역시 담배 보관함 - 주로 뒷벽 캐비닛 형태가 압도적이지만 - 과 같은 스타일로 보관한다면 무방하다. 예를 들어 주인이나 종업원 쪽에서만 보이는 공중 걸개 보관함 방식, 서랍형, 뒷벽 캐비닛 등 손님 눈에 보관 또는 전시된 베이퍼 제품이 보이지 않는 구조물이면 여하한 모양도 상관없다.

#### ● 제품 식별 꼬리표(small tags)

특정 제품의 빨리찾기에 도움을 얻고자 보관함 표면에 작은 꼬리표를 붙이는 것은 무방하다. 이 경우에도 가격표시는 금물이다. 허용된 꼬리표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 흰바탕에 검은 글씨
- 글자 규격은 14포인트까지
- 로고나 컬러 색상 사용 금지
- 전체 규격은 2인치 x 1인치까지 (약 5cm x 2.5cm) \*규격이 약간 큰 견출지를 상상하면 된다.

이상의 꼬리표 제약은 일반 소매업소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이며 전문 토바코숍이나 베이퍼숍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 ● 베이퍼 판촉 허용

일반 소매업소는 담배와 마찬가지로 베이퍼를 취급해야 하나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일정 한도내에서 판촉활동(promoting)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담배는 여하한 방법으로라도 판촉이 금지된 반면 베이퍼는 일정부분

협회 문의  
(416)789-7891

www.saintjimmyscoffee.ca  
The fastest growing coffee service in North America

순수 캐나다산 육류제품  
**GREAT CANADIAN MEAT**

9월~10월  
스페셜

Regular \$2.00/per pack  
Promotion \$1.62/per pack

Promotion Retail **2 for \$5**

1390 Hopkins St., Whitby (905)666-9395



관축의 여지를 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 5월에 제정된 연방법인 '담배와 베이핑 제품 관리에 관한 법률' (Tobacco and Vaping Products Act) PART IV DIVISION 2 'Vaping Products'에서 금지하는 사항들을 준수하는 조건하에서만 관축활동이 가능하다. 동 규정이 베이퍼에 대해 금지하는 관축활동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미성년자의 구매욕구를 자극하는 방식의 광고 관축
- 라이프스타일을 빙자한 광고 관축
- 제조사 지원하에 제품 브랜드 또는 제조사를 연상시키는 방식의 홍보 행위
- 관축물을 동원해 직, 간접적으로 특정 브랜드를 선전하는 행위
- 반영구적 시설물이나 조형물에 제품의 구성 요소 또는 제조사명을 인식케하는 문구나 도안이 표현되는 경우
- 베이퍼 제품 및 제품의 부분적 구성물(brand element)을 무료 제공하는 행위 (이는 소매업주뿐 아니라 제조사나 공급사도 금지)
- 해당 베이퍼 제품 구매를 조건으로 타 상품 또는 금전을 보너스로 제공하겠다는거나 특정 상품을 구매하면 베이퍼 제품을 보너스로 제공하겠다는 방식의 관축행위
- 업소 외부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하는 관축행위
-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정보(예,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 전달 의무를 어기고 제품을 관축하는 행위
- 여하한 관련 시행령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하는 관축행위
- 위법한 방식으로 POS를 이용한 관축행위

● No Vaping 표지물 부착 의무

베이퍼를 취급한다면 별도로 'No Vaping'이라는 경고문을 모든 출입문

과 화장실에 부착해야 한다. 'No Smoking'과 한 문장으로 해서 'No Smoking and No Vaping'이라고 쓰여진 문구도 무방하다. 업소 내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베이핑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주지시키는 것이다.

● 연령 제한 및 신분증 제시 의무

담배와 마찬가지로 베이퍼 취급 시 업주는 19세 미만 연령제한 고지문(vapour product age restriction sign)과 신분증 제시 의무화 고지문(vapour product identification sign)을 부착해야 한다. 이미 담배와 관련해서는 잘 부착되어 있을 것이고 베이퍼 관련해서도 동일한 스티커를 구해서 업소내에 부착해야 한다. 이들 두종의 스티커는 각 지자체에 문의하면 무료로 얻을 수 있다. (지자체 링크 <http://www.health.gov.on.ca/en/common/system/services/phu/locations.aspx>)

● 법정 연령확인카드 6종

담배는 물론 베이퍼 제품도 연령확인시 다음 6종만이 법적으로 허용된 신분증이다.

온타리오 운전면허증/온타리오 포토카드(Ontario Photo Card)/캐나다 여권/캐나다 시민권/캐나다 군인 신분증/LCBO카드

\*다만 OHIP카드도 사진과 생년월일이 인쇄되어 있다면 손님이 제시할 때 유효한 신분증으로 인정해야 한다.

〈결론〉

베이퍼 제품은 담배처럼 가리고 팔아야 하지만(전시금지) 연방법에서 금지하는 관축행위(위에서 소개한 "베이퍼 관축 허용" 숙지)를 준수하는 한에서 그밖의 관축행위는 가능함. ■



Authorized Zippo Dealer



## Order online by noon for **SAMEDAY SHIPPING**

\*Ask for Free Zippo Display

BONGS, DAB RIGS, BUBBERS, RECYCLERS, HAND PIPES, E-CIG, VAPORIZERS, GRINDERS, DUGOUTS, SCALES, SMOKING PAPERS, ALL KINDS OF SMOKING ACCESSORIES  
ZIPPO LIGHTERS, and ETC.

**Business Hours**

Monday to Friday  
**9.00am - 5.00pm**

Saturday  
**9.00am - 2.00pm**

Closed on  
Sunday and Holidays

Cash & Carry Store  
606 Magnetic Dr Torono, ON M3J2C4

onetradingltd@gmail.com  
T. 416 661 6664 F. 416 661 6668

**본부협회 매뉴얼 수립,  
법적 다툼에서 방어 효과 커**

**담배 관련 종업원 교육  
프로그램 시행**

2006년에 제정되어 지속적으로 수정되고 보강되어 왔던 온타리오의 담배관리법(SFOA ; Smoke-Free Ontario Act)은 협회 회원들의 주 관심사인 미성년자 담배 판매 규제에 물론 일반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광범위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회원 본인이 위반해 제재를 받는 것보다 마땅히 감수해야 할 부분이나 종업원의 위반 시에도 업소 및 주인에게 제재가 동등하게 가해지는 가혹한 사례가 바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다. 5년 내에 2회 적발되는 경우 최소 6개월 판매금지 처분을 보건부로부터 받기 때문에 매우 신경쓰이고 두렵기 짝이 없다.

문제는 함정단속이라고 하지만, 결국 법은 법이며 우리가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그동안 협회에서는 실험뉴스와 웹사이트를 통해서 수차례에 걸쳐 유관 기관의 담배취급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했고 인증서(Certification)를 받아 놓는 것이 법정다툼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그리고 실제로 협회가 회원들과 많은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것들이 거의 확실하게 재판에서 유리한 판정을 이끌어내는 데 긍정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사례를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협회는 회원들에게 본인은 물론 종업원들을 교육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근에 자체 안내서와 교육 지침서를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현행 법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담배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불법이라 규정하고 있다.(SFOA 3조 1항 : No person shall sell or supply tobacco to a person who is less than 19 years old.)

또한 매우 중요한 점은 경고문 사인을 잘못 부착하거나 25세 미만으로 보이는 자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지 않은 경우 또는 담배 로고명이 있는 라이터를 비롯한 악세사리를 손님 눈에 띄는 곳에 전시해 놓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불법이다.

법에서는 또, 종업원이 법을 어긴 경우 업주가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duel diligence)’**를 기울였는가를 매우 중요시 여긴다. SFOA 3조 4항 대리책임(vicarious liability)조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The owner of a business where tobacco is sold shall be deemed to be liable for any contravention of subsection (1) or (2) on the premises where the contravention took place, unless the owner exercised **due diligence** to prevent such a contravention.(1항 미성년자 담배판매 및 2항 연령체크를 위반한 경우 이같은 위반을 막기 위해 업주가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이 위반에 대해 책임이 있다.) 이 조항은 종업원의 위반 시 주인으로 하여금 연대 혹은 대리 책임을 부과하기 위한 규정이며 무한 책임을 면하게 하기 위한 단서가 바로 예방을 위한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느냐는 판단 기준이다.

그렇다면, 업주가 종업원 교육과 관련해 위의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입증할 구체적 행위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종업원에게 이와 관련된 충분하고 종합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실행
- 담배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종업원을 대상으로 실행

모두들 더 싸다고 말하지만  
“진짜 착한가격은 78 Trading”

Water Pipes      Glass Pipes      Vaporizers

Grinders      Rolling Papers      Scales

이외에도 다양한 스모킹 제품 및 잡화용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Business Hours**  
Monday-Friday 9:00AM-5:00PM  
Saturday 9:00AM-1:00PM  
Sunday Appointment

528 McNicoll Ave. North York M2H 2E1  
www.78trading.co    contact@78trading.co    78trading



-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실행
- 교육을 실시한 업주의 행위를 증명하는 근거서류 확보
- 정기적으로 프로그램을 모든 직원과 검토하고 확인서명을 받음
- 이상의 업소내 규정 미준수 시 벌칙부과 시스템 수립
- 법안과 규정에 대한 자격증을 이수하도록 정해놓음

CCSA(전국편의점협회)에서 시행하는 교육 이수(온라인을 통해 자료로 공부) 후 시험 통과 시 "We Expect ID-certified"라는 수료증이 주어진다.

또, 온주 정부에서 온라인으로 시행하는 시험 (Smoke-Free Ontario Act Vendor Training/www.sfoa-training.com)에 통과해도 수료증을 확보할 수 있다. 이 증서들을 종업원이 가지고 있으면 종업원이 적발될 경우 벌금만 부과되고 업소나 주인에게는 기록으로 남지 않을 방어수단이 되며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한 법적 다툼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도 언급했듯 실제로 일부 회원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법정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 또, 보건당국 조사가 벌금만 부과하고 업소에 기록이 남지 않도록 처리한 사례도 있다. 따라서 모든 회원들이 필수적으로 종업원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은 만일을 대비한 필수적인 안전조치인만큼 본부협회가 마련한 교육지침서를 꼭 활용해줄 것을 당부한다.

실협 웹사이트 [www.okba.net](http://www.okba.net)에 우선 "Vendor Training" 매뉴얼, 예

상시험 문제집, 종업원 서명부 양식 등을 올려놓았으니 이를 모든 회원들이 다운받아 출력해서 사용하면 된다.

한가지 유념할 점은 예상시험문제집은 정부가 10월 17일 기해 발효시킨 마리화나 및 전자담배와 관련한 사항을 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까지 아우르는 문제집이 조만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자담배까지 포함해서 허용과 금지 등에 관한 규정들을 숙지하고 있는지 일반 담배와 함께 다루는 문제집으로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어느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담배에 한해서는 웹사이트에 올린 예상문제집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전국편의점협회(CCSA)에서 시행하는 온라인 교육과 수료증도 중요한 방어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이 또한 확보해둘 것을 권한다.(CCSA 공식 웹사이트 [www.cstores.ca](http://www.cstores.ca) → 바탕화면 우측 중간 WE EXPECT ID 로고 클릭 → We Expect ID age-verification course 클릭)

이는 종업원 교육용이라고는 하지만 회원 본인도 종업원을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풍부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본인의 자격증을 따놓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고 본다. 아울러 본부협회는 동 프로그램과 관련해 지구협회장들과 의논해 소속 지구협 회원들이 이 교육프로그램을 신청하면 협회사무실에서 교육을 받고 그 자리에서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도록 돕는 세미나도 구상 중이다. 세부 계획이 수립되면 실협뉴스와 웹사이트를 통해 추후 공지 예정이다. ■

온라인 건/강/식/품 도매 B2B

DAVIDWHOLESALE.COM

\* 데이빗홀세일닷컴 연회비는 \$99입니다.

지금 가장 핫하게 떠오르는 아이템, 콤부차

“할리우드 여배우들이 마시는 건강다이어트 유산균음료”



Bucha Drink  
473ml

---

소비자가 \$3.99

도매가 \$2.42

+tax

\*도매등록시 승인을 위해 비즈니스 정보를 등록해 주시면 승인 시간 후 구입가능합니다.

신규 취급점 / 판매점 모집

토론토 내 배달 가능

1 Case (473ml X 12 bottles)  
GTA 지역 배달가능

{ 5가지맛 }

Blood Orange / Grapefruit Sage / Guava Mango  
Raspberry Pome / Yuzu Lemon

Natural products distributor B2B  
DAVIDWHOLESALE.COM

Special Gift

\$200

VALUE

When ordering online, apply the coupon code :  
\*쿠폰코드(온라인에서 사용) : **DWC20198009Q**

Registration Bonus

Sign up and get \$200 off for your first purchase.  
You can redeem only one coupon at a time of purchase.  
\*No cash value.

그랜드 오픈

\*오메가, 아사이, 각종 비타민 다양한 건강식품을 온라인에서 바로 도매가로 구매 / 200불 특별할인도 바로 받으세요!

NOT OPEN TO THE PUBLIC [www.davidwholesale.com](http://www.davidwholesale.com) 문의 : 416.419.3751 데이빗홀세일닷컴

Orders under \$200 before taxes and discounts are charged for shipping.

## 새 정권의 스몰비즈니스 프렌들리 전자담배 판촉 허용 뒷 이야기

10월 17일부터 온타리오주에서는 온라인을 통해 기호용 마리화나 (recreational marijuana)를 일반 소비자들이 합법적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놀라운 사건이다. 75년의 금지 역사를 깨고 마침내 온타리오에서는 정부 독점이기는 하지만 여하튼 온라인 구입이 가능해졌고 내년 4월부터는 민영 소매업소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

원래는 LCBO산하에 새로운 기구와 판매망을 두고 술처럼 정부독점으로 운영하려던 것이었는데 자유당에서 보수당으로 정권이 바뀌니 천지가 개벽이라도 하는 듯 정책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그런데 보수당 새 정부의 정책이 마리화나만이 아니라 그간 편의점 업계의 지대한 관심사였던 전자담배의 판촉도 허용하고 있다. 비록 전시 (display)는 담배처럼 금지시켰지만 일정 범위내에서 판촉이 가능하도록 한 것인데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본지 7~9면을 참고하고 이런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던 것인지 그 뒷 이야기를 전함으로써 대정부 로비와 스몰비즈니스에 대한 정부의 마인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함께 공감하고자 한다.

### ■ 관련 소식 일간지 기사

전자담배 허용 관련 법령이 발효된 10월 17일 바로 다음날인 18일에 전국지 글로브앤메일(Globe & Mail)이 기사 헤드라인을 “온타리오, 베이퍼 판촉 허용해”(Ontario to allow marketing of vaping products)라고 뽑고는 법안 통과 전후 사정을 아주 잘 전하고 있어 기사 전문을 소개한다.

『온타리오가 소매업소의 베이퍼 제품 홍보 행위 합법화를 규정한 국내 최초의 주(州)가 됐다. 여러 보건 단체들이 미성년자에게 크게 해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음에도 온주 정부는 지난 10월 17일자를 기해 이를 허용한 것이다.

일명 대마초 관리법이라 불리는 법안36호(Bill 36)가 이 날짜에 통과됐는데 이 법안의 한 구성요소로 포함된 전자담배 관련 시행령에서 베



이퍼 홍보 (marketing, promoting)를 제한된 범위내에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편의점, 주유소 등 담배를 취급하는 소매업소는 연방법(\* 담배와 베이퍼에 관한 법률 (Division 2 of Part IV of the Tobacco and Vaping Products Act)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전자담배를 홍보할 수 있다. 이 법에는 전자담배 광고와 관련해 몇가지 제약을 두고 있는데 예를 들어 조사 협찬을 받아 판촉을 한다든가 컬러, 그래픽 등이 미성년자의 구매유구를 자극하는 방식으로 디자인된 홍보물이나 판촉물이 동원된다면 이는 위법이다. 또한 담배 전시 금지와 마찬가지로 전자담배 역시 손님 눈에 띄게 전시되어서는 안된다.

현재 8개 주에서 전자 담배 관련한 법규가 제정돼 있는데 오직 온타리오만 전자담배 판촉을 허용하고 있다. 알버타와 사스캐추완은 현재까지 전자담배 관련한 법령이 아예 없다. 온타리오는 금년 7월 1일부로 모든 소매업소에서의 전자담배 전시 및 판촉을 금지시키려고 했었다. 그러나 새 정권인 보수당 정부가 불과 발효 수일을 앞두고 이를 중단하기로 정책을 바꾼 것이다.



보건 단체들이 관측 허용 정책은 베이퍼 제품을 일상화시켜(normalize) 비록 광고가 청소년을 직접적인 관측 대상으로 겨냥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청소년들을 쉽게 유혹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전국 암협회(CCS) 선임 정책분석가 랍 커닝햄씨는 “온타리오 이동을 희생삼아 메이저 담배회사가 거둔 승리”(This is a victory for Big Tobacco at the expense of Ontario kids.)라고 비꼬았다.

전자담배는 전형적으로 배터리로 작동하는 기기다. 니코틴이 함유된 액체 물질을 기화(vapour)시켜 소비하는 방식인데 베이퍼 상태는 분무기 안에서 농축되어 소비자가 흡입해 목안으로 넘어간다. 중독성인 니코틴 이외에도 전자담배는 다양한 해로운 화학물질을 소비자에게 노출시키는데 이 화학물질들은 장기적으로 건강 관련 문제를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자담배를 소비하는 미성년자의 경우 일반 담배를 피울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이 미국 과학 기관인 USNASSEM(U.S. National Academies of Sciences, Engineering, and Medicine)이 올해 초 발표한 한 보고서에서 지적된 바 있다.

지난 9월 미 식품의약청(FDA)은 청소년 대상의 캠페인을 하나 벌였다. 전자담배 소비와 니코틴 중독의 잠재적 위험성을 경고하기 위한 캠페인이었다. 그 일환으로 FDA는 미국 전자담배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는 쥘(JUUL Labs Inc.)사를 기습 사찰했다. 이 회사가 최근 캐나다 시장 진출을 발표한 바 있다. FDA 청장 스크트 고트리브씨는 미국 청소년 사이에 베이퍼 소비가 증가가 급속한 상태(epidemic)라고 말했다. “FDA는 성인

들이 전자담배에 전혀 규제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도록 방치된 결과로 청소년들이 또한 니코틴에 중독되는 상황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성명서까지 발표했다.

캐나다는 7학년부터 12학년(\*대략 한국의 중·고생)까지의 학생들 약 23%가 전자담배를 피워본 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2016-2017년 학생들의 담배/술/마약류 습관 실태 조사(2016-17 Canadian Student Tobacco, Alcohol and Drugs Survey)에서 밝혀진 사실이다. 이는 2014-2015 조사에서 20% 였던 것보다 오른 수치다. 전자담배를 피워본 이들 학생 중 17%는 일반 담배 상시 흡연자였으며 35%는 재미삼아 어쩌다가 일반 담배를 피운다고 답했다. 12%는 과거에 일반 담배를 피웠는데 이제는 피우지 않는다고 했고 36%는 담배를 피워본 적이 없었다. 전자담배 시도 학생 중 25% 조금 못되는 수가 전자담배를 소매업소에서 구입했다.

온주 크리스틴 엘리엇 보건부 장관과는 인터뷰가 되지 않았다. 대신 이메일을 통해 공보비서관이 답변을 해왔다. “정부는 청소년을 전자담배 및 이로 인한 간접흡연의 잠재적 피해에서 차단하는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소매업소는 미성년자에게 전자담배를 팔 수 없으며 연방 관련법을 준수하는 한에서 관측행위만 허용될 뿐이다”는 것이 대답이었다.

온주편의점협회(OCSA) 데이브 브라이언즈 회장은 정책변화(\*관측 허용)로 인해 소매업소가 성인 흡연자를 대상으로 홍보가 가능해졌는데 이들 성인흡연자가 전자담배 시장의 목표 마켓이라고 말했다. (\*청소년이

**DUKE'S**  
Freshly Crafted Smoked Meats

**천연 통째 재료 훈제육**  
소량의 설탕 사용

열리지 않은 신선한 돼지고기 | 천연의 통째 재료 | 특별한 나무로 실제 훈제 | 소량 분배 생산 표시

193

DIRECT TO STORE DELIVERY | CONTACT: E. customerservice@metro360.ca | Toll Free: 1-888-639-7868

**Big's**

단백질 가득! 맛과 향이 풍부!  
시드(SEED) 스낵!

직화구이 | 최고급 점보 씨앗 | 풍부한 맛

DIRECT TO STORE DELIVERY | CONTACT: E. customerservice@metro360.ca | Toll Free: 1-888-639-7868

아니라는 말)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지 입으로 소통하는 행위일 뿐이다. 현재 우리는 최소한 몇 가지 절충안을 마련했는데 일반 담배 흡연자에게 전자담배가 덜 해로운 대체품이 될 수 있다는 장점 등을 소비자에게 전할 수 있는 수준의 관측이다.”

앞서 소개한 FDA의 기습 사찰을 받은 전자담배 회사 ‘주울’(JUUL)은 성명을 통해 “미성년자 접근을 차단함과 동시에 성인흡연자에게 전자담배 제품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이번 관측 허용 정책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우리는 온주 정부가 중요한 공중보건의 목표들 사이에서 균형점을 잘 잡았다고 믿으며 온주 정부의 접근 자세 즉 전자담배가 취급되고 있는 업소에서 전자담배와 관련해 책임있는 소통이 가능하도록 허용한 온주 정부의 입장을 지지한다.”

### ■ OCSA입장 (회장 서신)



OCSA는 이번 베이퍼 관련법 개정 시에 매우 기민하고 활발하게 대정부 접촉을 벌이며 전문 베이퍼숍과 편의점의 형평성 문제에 고심했으며 비록 전시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당초 우려했던 많은 불리한 점들을 해소시켰다. 물론 이에 OKBA의 적극적 지지와 협력도 한몫했던 사실 또한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10월 18일 발표 전후해서 벌어진 OCSA의 숨은 활약은 데이브 브라이언즈 회장이 협회를 비롯한 회원사들에게 보낸 이메일 서신에서 아주 잘 나타나 있어 이를 축약해 소개한다.

『그간 베이퍼 문제와 관련해 회원들에게 간략히 브리핑할 기회를 가지고 싶었다. 우리 OCSA가 전시 판매 허용을 받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경주했다. 모든 회원들이 지역 의원들을 접촉하고 서신도 보내고 이 메일도 보내 우리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자고 당부도 했다. 나 개인적으로는 퀸즈파크에서 이번 주에 많은 정치인들을 접촉하면서 이 문제의 복합적인 의미를 설명했다. 소관상임위에서 의견도 전했지만 보건단체들의 공세에 밀린 느낌이다. 보수당 의원들 전원에게 서신을 보내 문제의 핵심과 우리 편의점 채널의 신뢰성, 능력, 모범적 준법 정신 등을 설명했다.』

마침내 나는 포드 수상에게 연락이 닿아 어제 아침 (\*10월 17일 아침) 최후의 호소를 했다. 건강을 내세우며 편의점 채널에 해를 끼치는 주장을 펼치는 우리들의 말을 전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설명을 했다. 그리고 같은날 밤에는 수상 사무실과 전화통화도 했다. 공정한 경쟁을 촉구하며 우리의 우려를 전했다. 보건 단체들은 위낙 영향력이 강하고 공세적이라 많은 부처가 편파적으로 회유당할까 하는 걱정에서였다.

시행령이 발표되기 직전인 목요일 아침 모든 온타리오의 보건단체들 암협회, 심장및뇌졸중협회, CAMH, 이런 저런 금연단체 등등...저들은 패거리 지어(ganged up) 수상집무실에 몰려갔고 보건부를 못살게 굴다시피하며 편의점이 손님에게 베이퍼 제품 관측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난리법석을 떨었다. 이들은 전시금지, 홍보물 사용 금지, 손님에게 구두상으로도 제품 소개하는 행위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

고 전국일간지 글로벌엔메일을 접촉해서 정부가 어떻게 메이저 담배 회사에 굴복하는 중인지를 장황하게 설명했다. 그리고 늘 되풀이하는 불평 어린 어조로 편의점이 아이들에게 담배를 팔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이야기는 글로벌엔메일에 결국 기사화됐다. 해당 기사 일독을 권한다.(\* 관련 기사는 본 기사 앞부분에 전문 번역하였음.)

OCSA는 목요일 아침에도 재차 수상 집무실과 선을 닿아 접촉해 조울을 거듭했고 마침내 편의점이 선전물을 게시하는 것은 허용했으며 가게와 유리창 같은 곳 어디에도 무방하다는 허락을 얻어냈다. 이 선전물에는 가격, 제품정보, 베이퍼의 장점 등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건강단체들의 극성어린 로비로 인해 전시판매만큼은 어떻게 풀 수가 없었다. 사실 이들 무리와 강력하게 싸우는데 힘을 보태준 OCSA회원은 그리 많지 않았다는 사실을 유념해달라. 대다수 소매업소 들은 무관심했다. 정치인들에게는 이 문제가 편의점 채널에 그리 시활적 중요성을 갖지 않는 것으로 보였던 것이다. 정부 로비하는데 이골이 난 이들 잘 조직화된 보건단체들의 열성과 행동에 비해 우리는 절대적으로 약하고 소극적이다.

다만 주어진 범위안에서 베이핑 제품의 구색을 잘 갖추고 잘 홍보하면 손님들을 전문 베이퍼숍에 많이 빼앗기지 않고서도 잘 해나갈 수 있으리라 낙관한다. 새 시행령은 모든 베이퍼 제품이 포장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 베이퍼숍에서 취급하는 제품과 편의점에서 취급하는 제품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며 이 규정을 어긴 제품들은 불법이다. 또한 중요한 사실은 OCSA의 협상력이 주효해 모든 베이퍼숍은 편의점이 취급하는 제품을 중복 취급할 수 없도록 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칩스, 생수, 복권, 일반담배까지도 베이퍼숍이 취급할 우려가 있었으나 이는 다행히 허용되지 않는다. 최근 베이핑 제품과 소비자 트렌드를 보면 미국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Juul, Vype, Blu 등인데 주로 편의점 채널을 통해 판매되고 있고 교체 카드리지도 편의점에서 주로 거래된다.

나름의 홍보 관측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나는 자부심을 가진다. 우리는 “베이퍼 제품 취급”(vapour products available)이라는 문구를 담은 흑백 색상의 표지물(sign) 한개를 전시할 수 있다. 또, 유리창, 출입문 등을 활용해 컬러 색상으로 베이퍼 제품의 장점과 가격을 홍보할 수도 있다.

이것이 완전한 승리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최선을 다한 결과로 이나마 성과를 가진 것에 대해 안도한다. 다시 한번 주지하기 바란다. 다양한 보건 단체들은 우리가 얻은 이 정도의 성취에 대해 아주 불만이 많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만은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이고 그래서 성인 담배 흡연자들로 하여금 베이퍼 제품으로 바뀐다는 권유를 마음놓고 할 수 있다. OCSA회원 가게가 전부 이렇게 홍보를 할 때 과연 전문 베이퍼숍이 얼마나 잘 버틸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





# Saputo

## 사푸토 실크 시리즈



11월 4일부터 가격 인상

사푸토에서 공급하는 실크(Silk)브랜드 1.89리터 음료 시리즈의 일부가 오는 11월 4일부터 가격이 올랐다. 표로 정리해 소개한다.

| 제품명                           | 현행 가격 | 인상폭(\$) | 조정 가격 |
|-------------------------------|-------|---------|-------|
| SILK 1.89L SOY BEVERAG ORIG   | 3.71  | 0.19    | 3.90  |
| SILK 1.89L SOY BEVERAGE VAN   | 3.71  | 0.19    | 3.90  |
| SILK 1.89L SOY BEVERAGE CHOC  | 3.71  | 0.19    | 3.90  |
| SILK 1.89L TRUE ALMOND ORIG   | 3.95  | 0.21    | 4.16  |
| SILK 1.89L TRUE ALMND UNS VAN | 3.95  | 0.21    | 4.16  |
| SILK 1.89L TRUE ALMOND VAN    | 3.95  | 0.21    | 4.16  |
| SILK 1.89L TRUE COCONUT ORIG  | 3.95  | 0.21    | 4.16  |
| SILK 1.89L TRUE ALMOND UNSWEE | 3.95  | 0.21    | 4.16  |



## 신상품! 고단백 울트라필터 우유

- ✓ 울트라필터 우유 : 첨가물이 가미되지 않은 순수 영양소가 한잔에 가득
  - 일반 우유보다 75% 더 많은 단백질
  - 일반 우유보다 25% 더 적은 양의 유당(당분)
- ✓ 신선하고 깔끔한 맛과 향
- ✓ 실온에서 120일간 신선도 유지
- ✓ 인체공학적으로 디자인된 용기
- ✓ 밀봉뚜껑으로 신선도 최대 유지
- ✓ 시장 선도 날슨 제품
- ✓ 순수 캐나다 자원으로 생산, 판매되는 신선한 우유



저설탕, 고단백  
우유로 보다  
활력있고  
즐거운 하루를  
시작하세요.



결코 쉽지 않음을 느꼈다. 특히 고위 임원급의 인력은 더 찾기 어렵다. 훨씬 더 큰 규모의 경쟁사인 아마존, 쇼피파이(Shopify)같은 회사들이 죄다 훔쳐가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게 해서 이 회사는 1년을 찾아 헤맨 끝에 원하던 최고기술책임자(CTO)를 구할 수 있었다.

## 고령화에 젊은 숙련 인력 구하기 大亂 假감

# 구인난 악화일로, 편의점도 예외아냐



Shopify는 캐나다의 유명 전자상거래 회사로 본사는 오타와에 있고 2004년에 두 젊은이가 창업해 빠른 속도로 발전해 현재 직원이 3,000여 명, 뉴욕과 토론토 주식 시장에도 상장돼 있는 회사임.  
www.shopify.ca

그러나 중소 규모의 테크놀로지 기반 벤처기업들만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니다. 한국으로 말하면 산업은행에 해당한다고 할 BDC(Business Development Bank of Canada)에서 발표된 최근 자료에 의하면 신생기업들의 40% 가까이가 모든 급의 인력 구하기에 힘들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43%는 인력난으로 인해 회사 성장의 한계에 도달해 있다고도 했다. 또 56%가 자기 회사 직원들이 모자라는 인력으로 인해 더 많은 시간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한다. 거의 절반 가까운 응답자들은 이런 구인문제때문에 기존 인력에 대한 급여 인상과 복지혜택(benefits)의 조건 업그레이드 등을 베풀고 있다.



벤쿠버에 에비뉴(Avenue)라는 이름의 신생 회사가 있다. 부동산 전문가를 양성해내는 일종의 독보적인 마케팅 사업체라 하겠는데 2013년에 창립해 처음 3년 6개월 사업이 잘 나갈 때는 인력 문제가 전혀 문제거리가 아니었다. 출발 당시 12명의 직원으로 잘 꾸려나갔는데 사업이 활성화 되면서부터 불과 18개월 지난 후 85명으로 불어났다. 뒤 회사가 그만큼 잘 나가니까 직원도 몇배로 불리는 것이지 소득도 없는데 다운사이징은 못할 바에 직원들릴 바보같은 회사가 어디 있겠는가.

회사 창립자이자 최고운영책임자(COO)인 레베카 트윙스트라씨는 마침내 고위경영진 그룹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 직원이 많아지니 아무래도 인력관리와 통제에 대한 능력있는 간부가 필요해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였다. 벤쿠버처럼 그리 크지 않은 규모의 도시에서 신생 벤처기업이 회사가 찾는 경험많고 노련한 인력을 구하기는



▲ 중소기업의 심각한 구인난을 설명하며 신규이민자, 은퇴자 등 메인 노동력에서 소외된 계층의 인력 활용에 눈길을 돌리라는 조언을 하고 있는 BDC의 피에르 클레루 부회장

BDC의 부회장이자 수석 경제분석가이기도 한 피에르 클레루(Pierre Cleroux)씨는 인력문제는 100명 미만의 중소기업체에서 아주 심각하다고 말한다. “비즈니스 규모가 작을수록 자격미달의 인력을 구하기 힘들고 결국 이들을 고용해 제대로 써먹기 위해 교육 훈련을 많이 시켜야 하니 이래저래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이 크다.

앤드류 인조디씨는 토론토에 소재하고 있는 공학기술 전문 상담업체 페토 맥켈럼이라는 회사의 회장 겸 CEO이다. 이 사람의 고민 역시 책임 인



력 찾기도 회사 특성상 연중 시기에 따라 인력 수요의 변동이 심하다는 점이다. 많이 필요할 때는 200여 명도 더 구해야 하며 그것도 어디나 많이 찾는 고속런도 인력까지 포함하면 이를 충족시키기가 더 어려워진다. 그런데 비숙련 인력이라도 채용해서 훈련시켜 써먹는 대안은 쉬운가하면 그게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는 것이 또 문제다. 이런 사람들은 오래 붙어있지 않는다. 왜냐하면 기껏 키워놓으면 인재 스카우트 전문가(일명 헤드헌터)들이 뺨을 채간다.

지금까지 말한 구인난이 일시적 현상인가? 그렇지 않다. 앞으로 사태는 더 심각해질 것이다. 이유는 고령화 현상때문이다. 이는 지구촌 전체의 이슈이기도 하다. 고령화와 더불어 같은 의미이지만 젊은 근로인력의 품귀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10년만 더 지나면 사태가 어떻게 급방 다가오는 우려스러운 일이다. 통계를 보면 실감난다. 2000년에 노동시장에 공급된 새 인력은 263,000명 정도였다. 2018년 올해는 10만 명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니 불과 20년도 안된 세월에 반도 안되는 수치로 줄었다. 따라서 향후 몇년만 지나도 상황은 더 어려워질 것이니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 이슈를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생각하고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전국독립사업체연합(CFIB) 회장 댄 켈리씨도 인력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전한다. 고질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는데 케벡과 같은 실업률이 낮은 지역의 경우 수많은 소자영업소나 소기업들이 사람 구하기가 늘 어려워 고생을 해왔었다. 그런데 2007년부터 이 현상이 천연자원이 풍부한 사스케추완, 알버타, 매니토바와 같은 서부주의 스몰 비즈니스로 확산됐다.

유전이나 개소 회사들의 경쟁이 치열한 이곳에서는 개발 분야라도 일어나면 근로자가 너무 부족해지는데 덩달아 요식업계나 소매업소들도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현상으로 확대된다. 결국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까지 활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정부가 아마저도 불법화하면서 사람구하기 전장같은 난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켈리 회장은 고용가능 인력의 기근 현상이 현재에도 치명적 이슈이지만 고용주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날의 근로자들이 추구하는 달라진 목표를 깊이 통찰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어느모로 보나 오늘날 우리는 세계에서 고등교육 인력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다. 이는 이 새로운 인력들이 특정 직업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관심을 가지지 않음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저숙련 직종에 종사하겠다는 사람들이 희박해짐에 따라 이 방면의 인력 수요가 집중되고 이런 부류의 인력난이 심각해지는 것이다.” 켈리 회장의 설명이다. 편의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편의점 헬퍼라는 것이 특별한 교육이나 숙련이 필요한 것이 아니니 저 설명에 입각해볼 때 앞으로 편의점 종사원 구하기는 지금도 힘들지만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예측은 쉽게 나온다.

### 구인난과 구직난의 묘한 공존

토론토의 정크션크래프트브루잉(Junction Craft Brewing Inc.) 회장 탐 패터슨씨는 자기네 종업원들이 종종 일에 흥미를 잃는데 서류업무까지 포함해 일이 과중한 때문으로 이해하고 있다. 최근 수년동안 특히 이직률



## 캐나다한인여성회

# 2018년 11월 프로그램

|   |   |  |   |   |  |
|---|---|--|---|---|--|
| <h4 style="text-align: center;">활기찬 노후 준비 시리즈</h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11월 6, 13일 (화)<br/>오전10시30분 - 오후12시</li> <li>■ 장소: KCWA 노스옥</li> <li>■ 담당: 정착상담원 강영옥</li> <li>■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유연과 상속</li> <li>2.자원봉사, 헬스케어, 모지와 장례사전 준비</li> </ol> </li> <li>*정원 30명 (사전등록 필수)</li> </ul>                  | <h4 style="text-align: center;">캐나다 이민 안내</h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11월 6일 (화)<br/>오후6시 - 오후8시</li> <li>■ 장소: KCWA 노스옥</li> <li>■ 담당: 정착상담원 김효원</li> <li>■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최근 이민 동향</li> <li>2.캐나다 이민의 종류</li> <li>3.가족 초청 이민</li> <li>4.익스프레스 엔트리</li> <li>5.주정부 이민</li> <li>6.질문과 답변</li> </ol> </li> <li>*사전등록 필수</li> </ul>                      | <h4 style="text-align: center;">세이프 클럽</h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11월 7, 14, 21, 28일 (수)<br/>오전10시 - 오전11시30분</li> <li>■ 장소: 갤러리아 신히점 (7040 Yonge St. Thornhill)</li> <li>■ 담당: 가정상담원 박주연</li> <li>■ 내용: 정착 영어와 캐네디언 문화 배우기</li> <li>*배우자 초청 이민 신청자 및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은 남녀</li> <li>*영어레벨 중급 또는 중급이상</li> <li>*사전등록 필수</li> </ul>                                      | <h4 style="text-align: center;">캐나다 시민권 시험준비반</h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11월 8, 15일 (목)<br/>오전10시 - 오후2시</li> <li>■ 장소: KCWA 노스옥</li> <li>■ 담당: 정착상담원 김효원, 최성혜</li> <li>■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캐나다 시민의 권리와 책임</li> <li>2.캐나다의 역사, 근현대사</li> <li>3.캐나다 정보, 사법 시스템</li> <li>4.캐나다 상징, 경제, 지리</li> <li>5.문제풀이</li> </ol> </li> <li>*등록비\$20 (사전등록 필수)</li> </ul>  | <h4 style="text-align: center;">무료 헤어컷 서비스</h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11월 12일 (월)<br/>오전9시30분 - 오후12시30분</li> <li>■ 장소: KCWA 노스옥</li> <li>■ 담당: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주영숙</li> <li>■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시니어를 위한 무료 헤어컷 서비스 (70+)</li> </ol> </li> <li>*신청순 7명 (사전등록 필수)</li> <li>*신분증 지참 *상프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li> <li>*이 프로그램은 '은빛동행' 프로젝트와 함께 합니다</li> </ul>   |  |
| <h4 style="text-align: center;">부모 초청 안내</h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11월 20일 (화)<br/>오전10시 - 오후12시</li> <li>■ 장소: KCWA 노스옥</li> <li>■ 담당: 정착상담원 김효원</li> <li>■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스폰서십의 의미와 자격</li> <li>2.부모/조부모 초청 이민 절차</li> <li>3.신청서와 구비서류</li> <li>4.질문과 답변</li> </ol> </li> <li>*사전등록 필수</li> </ul> | <h4 style="text-align: center;">캐나다 국제청과 함께하는 세금보고 자원봉사 안내</h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11월 20일 (화)<br/>오후6시 - 오후8시</li> <li>■ 장소: KCWA 노스옥</li> <li>■ 담당: 정착상담원 이선경</li> <li>■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CVITP 란?</li> <li>2.CVITP 자원봉사자 역할</li> <li>3.CVITP 자원봉사자 요건</li> <li>4.자원봉사자에게 주어지는 혜택</li> <li>5.E-file 신청안내</li> </ol> </li> <li>*사전등록 필수</li> </ul> | <h4 style="text-align: center;">무료 이동 진료</h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11월 20일 (화)<br/>오전10시 - 오후3시</li> <li>■ 장소: KCWA 다운타운</li> <li>■ 담당: 정착상담원 강영옥</li> <li>■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자궁경부암 검사</li> <li>2.질염 검사</li> </ol> </li> <li>*정원 15명 (사전등록 필수)</li> <li>*OHIP 카드 없이 진료가능</li> <li>*한국어 통역 서비스 제공</li> <li>*무료 서비스</li> </ul> | <h4 style="text-align: center;">성장하는 엄마 아이의 마음을 아는 엄마</h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11월 23, 30일, 12월 7, 14, 21일 (금)<br/>오전10시 - 오후12시</li> <li>■ 장소: KCWA 노스옥</li> <li>■ 담당: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오신성희</li> <li>■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나는 행복한 엄마인가? 여성 Talk!</li> <li>2.성격유형으로 풀이하는 자녀와의 소통의 기술</li> <li>3.불안하고 화나는 감정 돌보기</li> <li>4.스마트폰과 게임에 마음을 빼앗긴 아이들</li> <li>5.성장하는 엄마, 아이의 마음을 아는 엄마</li> </ol> </li> <li>*정원 20명 (사전등록 필수)</li> </ul> | <div style="text-align: center;">  <h4 style="margin: 0;">2018 커리어 네트워킹 캐나다 공무원 되기</h4>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12월 8일 (토) 오전10시 30분 - 오후2시</li> <li>■ 장소: 노스옥 시빅센터 5100 Yonge St. North York</li> <li>■ 담당: 정착상담원 최성혜</li> <li>■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연방정부, 주정부, 시정부의 한인공무원들 한자리에 만나는 기회</li> <li>2.공무원 분야에 대한 소개와 취업 기회 설명</li> <li>3.초청 공무원과 참석인들의 소모임</li> <li>4.네트워킹을 위한 노하우</li> <li>5.질문과 답변</li> </ol> </li> <li>*간단한 점심식사 제공 (사전등록 필수)</li> </ul> |  |
| <p style="font-size: small;">등록 및 문의: 416-340-1234 www.kcwa.net<br/>KCWA 다운타운: 27 Madison Ave, Toronto   KCWA 노스옥: 540 Finch Ave, W. 2nd Fl. Toronto</p>  |   | <p style="font-size: small;">토론토 총영사관 정착 서비스<br/>일시: 11월 12일 (월) 오후1시30분 - 오후4시30분<br/>장소: 토론토 총영사관</p>  |   | <p style="font-size: small;">커뮤니티 자원봉사<br/>일시: 11월 10일, 24일 (토) 오전10시 - 오후2시<br/>장소: Good Shepherd Ministries</p>   |  |



Financed by: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Financed by: Immigration, Réfugiés et Citoyenneté Canada



Financed by: Toronto



Financed by: 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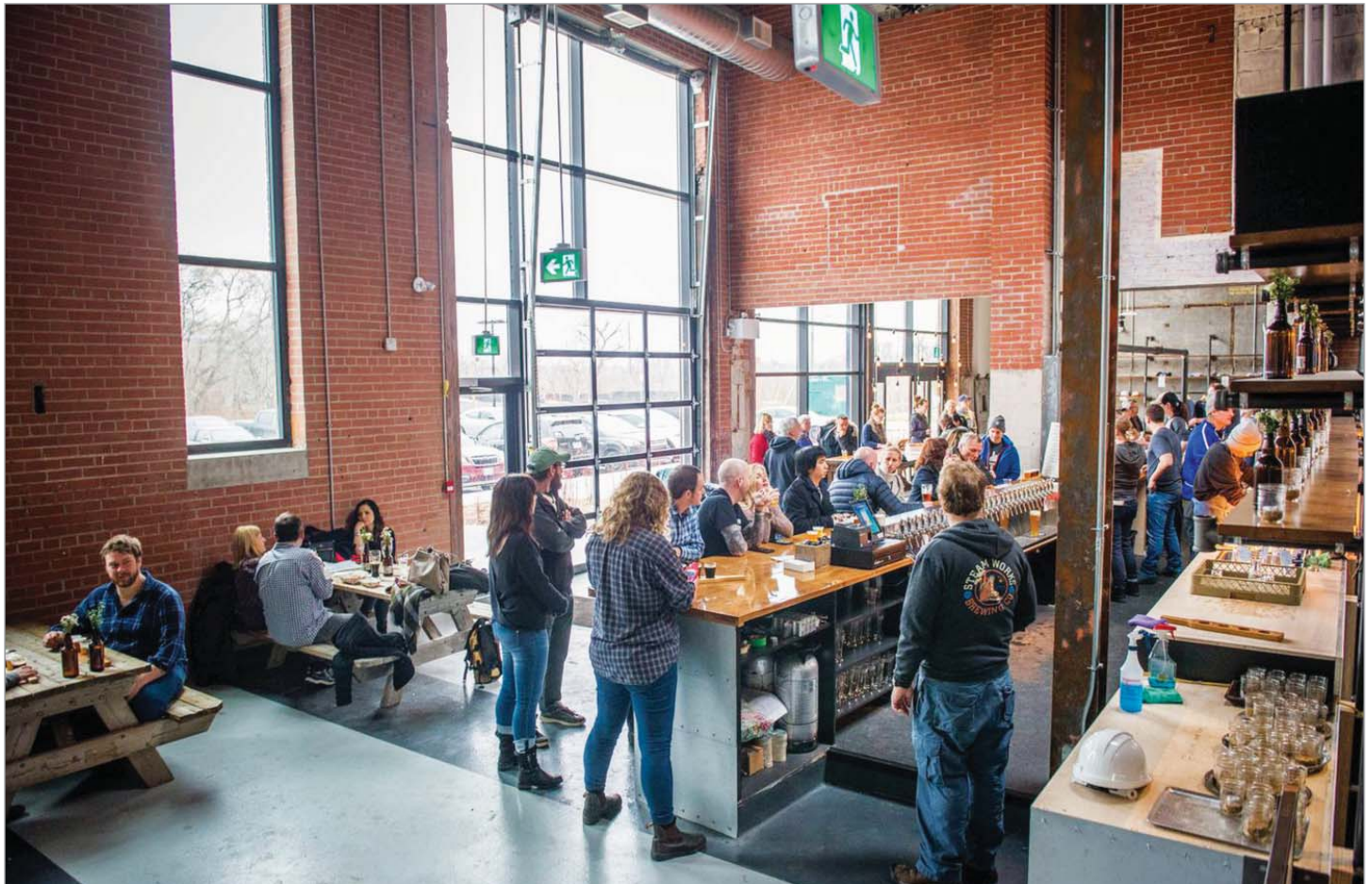


주토론토총영사관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ORONTO



이 높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회장은 이렇게 말한다. “요즘 젊은이들은 삶의 태도와 방식에 있어 기성세대와는 크게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일에 매달려 자신을 소진하지 않고도 시급 20달러는 쳐주는 회사나 업소를 원한다.” 그런데 이또한 자리가 흔해보이지 않으니 구인난과 동시에 원하는 기대치의 구직난이 동시에 공존하는 현상이 공연히 있는 것이 아니다.

CFIB 켈리 회장도 지적하듯 많은 중소기업체들은 그러나 임금 인상이나 복지조건 증대와 같은 미끼를 키워 줄 여력이 큰 기업에 비할 바가 아니다. 악순환인 셈이다. 재능있는 사람을 계속 붙잡기 위해서는 뭔가 이런 것이 아닌 색다르고 창의적인 측면으로 접근해야 할 것 같다는 것이 회장의 생각이다.



▲ 토론토 다운타운의 Junction Craft Brewing Inc. 시음코너. 회장은 젊은 직원들의 이직률을 낮추고 안정적인 인력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묘안을 짜는데 고심하고 있다.

여하튼 이렇게 마땅한 사람 구하기가 난제이다보니 자동화 시스템 도입이 활발해진다. 사람의 필요성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이 방법이 현재로서는 유일하다.

특히 소매업과 제조업에서 자동화 시스템이 집중된다. 양쪽 모두 심각한 인력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소매업체는 손님 셀프 스캐닝과 셀프 체크아웃(계산) 시스템을 운영한다.

홈디포나 패스트푸드점에 가보면 이런 현상이 날이 갈수록 일반화되는 것은 누구나 느낄 것이다. 패스트푸드점들이 주문과 계산을 손님 스스로 셀프서비스 키오스크에서 처리하고 있는 모습은 점점 더 자주 눈에 띈다.

하지만 자동화는 아직까지 전면적인 현상은 아니다. 극히 일부에서 인력난을 피하기 위해 도입하는 실정이고 어디까지나 이제 시작일 뿐이다. 잦은 이직률로 인한 회사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결국 건강 및 치과 보험 등 여러 복리후생의 혜택이라는 인센티브를 더 후하게 해주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실제로 더 붙어있겠다는 의사표시를 종업원 자신이 먼저 요구할 때 내세우는 것이 이 복리후생 인센티브이기도 하다.

앞의 부동산 마케팅 상담 회사 예비뉴 창업자 트윙스트라씨는 두가지 당근을 구사하고 있다. 하나는 스톡 옵션이고 또 하나는 무제한 휴가이다. 회사가 밴쿠버 도심지에 있다는 것은 덤으로 젊은 인력들에게 매력을 주는 요소이다. 아무래도 젊은이들은 외곽보다는 다운타운에서 일하는 것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장점으로 작용한다. 또 다른 인센티브로는 직원이 뭘 배우겠다고 할 때 수강료를 회사가 부담해준다. 이것은 이래저래 관련지식을 쌓음으로써 회사 업무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면 생돈 날리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음으로는 반려동물 친화적 환경이다. 아마 애완견이 있으면 직장에 데려와서 일해도 허용하는 모양이다. 그리고 건강보험 지원, 심지어는 재택근무(在宅勤務) 하는 직원을 위해서는 무료 점심 도시락도 배달시켜준다.

BDC부회장 클레루씨 역시 인력 붙들기의 몇가지 아이디어를 소개하는데 이민자, 비숙련 청년, 노인 또는 은퇴자, 지체부자유자 등 인력의 메인 스트림에서 소외되어 있는 계층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보라고 한다.



이들은 여전히 실직률이 높은 편이고 직업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다. 새 이민자를 고용하고 이들을 잘 훈련시킨 매우 유익한 결과를 즐기고 있는 대표적인 업체가 앞에서 소개했던 공학기술 상담업체이자 인력공급사인 페토 맥켈럼이다. 대표 인조디씨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일을 잘하며 우리와 오랜 세월 함께 해오고 있다”며 신규 이민자 인력에 대해 극히 만족해하고 있다.

클레루 부회장의 조언을 한번 더 인용한다. “고용주로서의 자신의 회사 자체 이미지를 제고를 위한 마케팅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많은 중소기업 사들이 자사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이런 저런 마케팅에 노력을 쏟지만 정작 회사 혹은 업체 자체 홍보, 즉 우리회사는 좋은 회사라는 홍보에는 무관심한데 이것이 결국 사람 얻기 과제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이제라도 우리 회사 우리 업소가 다른 곳하고 뭐가 차이가 있으며 어떤 장점이 있는 곳인지를 열심히 알려야 할 것이다.” 젊은 인력을 구하기 위한 업주나 사장들의 획기적인 사고의 변혁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리고 변혁의 핵심은 자신의 비즈니스에 대한 올바른 메시지 전달이다.

최근 정크션브루어리 회장 패터슨씨는 자신의 사업체 자체의 홍보를 통해 인력 확보의 새 길을 모색하고 있다. “전통적인 양조 분야로부터 핵심 인력을 채용해왔는데 생각을 근본적으로 달리 해야 하겠다. 이 분야는 현재 바이어마켓이고 그래서 이 업종의 인력들은 선택의 범위가 훨씬 많아지고 있다.” 회장이 과연구체적으로 어떤 인력확보 대책을 수립할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2014년에 창업해 토론토를 근거지로 활발한 비즈니스를 펼치고 있는 앰플오가닉스(Ample Organics) 라는 회사가 있다. 독특한 점은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마리화나를 전문으로 마케팅하고 재배에서 생산, 유통에 이르는 전과정의 기술지도, 정부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이 주 업무다. 아마 올해 가장 많이 문의와 요청을 받은 신생 기업인 것으로 보인다.

기호용 마리화나의 합법화가 시행되는 해인만큼 관심이 폭증한 것과 맞물린 현상이겠다. 회사로서야 이토록 주목을 받으니 지극히 만족스럽겠지만 CEO 존 프렌티스씨는 이 좋은 시절임에도 글래스도어(GlassDoor)의 평가에 상당히 신경을 쓰며 현재 누리고 있는 최고의 호평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겸손해한다. 글래스도어는 한마디로 말해 회사의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신생 회사다. 특이한 점은 월가에 있는 회사 신용등급평가 전문 기관처럼 경영이나 재무 전문가들이 하는 평가에 기반하지 않고 해당 회사에 몸담고 있는 현직 직원 또는 전직 직원들로부터 익명으로 얻은 정보에 기반해 평가를 내리고 이를 웹사이트에 기반해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사이트에 가면 구인 정보도 얻을 수 있으며 본사는 미국 캘리포니아 밀 벨리에 있다. 채용으로 연결시키는 서비스까지 웹에 기반해 운영하는데 직원이 벌써 800여 명에 이르는 큰 회사로 성장해 있다. 웹사이트는 [www.glassdoor.com](http://www.glassdoor.com) 이외에 .ca, .uk, .de 등 여러나라 사이트로 구분돼 있다. 프렌티스씨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바로 글래스도어의 회사 평가에서 지금 매우 만족스러운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를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다. 회사 이미지, 일하고 싶은 회사, 직원들로부터 사랑받는 회사라는 이미지부터 먼저 이뤄야 구인난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매우 선견지명이 있는 기업주이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여직원이 같은 직위이거나 동일한 수준의 일을 하는데 남자 직원에 비해 월급을 덜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이슈들은 정말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대표가 이런 마인

드를 가지고 있으니 이곳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가 어떨지 충분히 상상이 간다. 구인난의 무풍지대일 것 같지 않은가?

또다른 이야기인데 신축성(flexibility)이야말로 소자영업 또는 중소기업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는 것이 CFIB 켈리 회장의 지론이다. 업무 형태나 구조가 과거처럼 틀에 박힌 것이 아니라 점점 자유 분방해지는 풍토에서 숨막히게 짜여져 돌아가는 대기업보다는 신축성있는 근무 조건이나 환경을 제공하는 중소기업이라면 차라리 이런 곳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이 늘어가고 있는 세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편의점 역시 구인난에 허덕이기는 마찬가지이며 외곽쪽에서 마땅한 헬퍼를 찾기는 더욱 어렵다. 독립 편의점의 경우 최저임금까지 터무니없이 올라 아예 구인은 포기하고 가족들이 매달려 더 많은 일을 해야하는 실정이다.

대기업은 전체 거대한 업무구조의 틀에 의해 빈틈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운신이 매우 무겁고 예외의 여지가 없지만 몸집이 가벼운 중소기업들은 얼마든지 인력구조의 틀과 프레임이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예를 들어보자. 에비뉴사의 트렐스트라 대표는 직원들에게 사무실에서 일하던 집이나 다른 곳에서 일하던 선택권을 부여했다. 업무 효율성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런가 하면 일부 직원들은 영국에서 채용했는데 이들이 주말끼고 고향 영국으로 5일 휴가를 떠나면 이 중 이들은 고향 집에서 일하도록 융통성있는 근무 조건을 주기도 한다. 영국인 직원들은 이를 매우 즐긴다. 업무량을 충족시키면 되기에 문에 비행기 안에서 오고 가며 일할 수도 있고 고향집에서 여가를 보내며 일할 수도 있다. 여하튼 이들에게 해당하는 과업을 완수하기만 하면 되는 일이다.

밴쿠버에서 4시간 떨어져 있는 솔트스프링 아일랜드가 고향인 또 한 직원은 아내가 첫 아이를 낳아 가사도 돌보고 해야 했기 때문에 이를 배려해서 트렐스트라 회장은 이 직원에게 아예 고향인 솔트스프링에서 재택 근무를 하라고 제안했다. 흔쾌히 받아들인 직원은 일주일에 한번만 밴쿠버 회사에 와서 일하고 나머지는 집에서 일하고 있다. 일도 아주 잘하고 생산성은 더 좋은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롭고 신축성있는 근무 환경과 조건이 거둔 결실로 소자영업주도 종업원 관리에서 사기 진작과 업무능률 제고를 위해 발상의 전환을 해볼직하다. 편의점 업주도 나름의 아이디어를 얻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점점 더 힘들어지는 구인이 머지않아 구인대란으로 이어질 날이 금방 들이닥칠 것 같으니 사전 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

49년만에  
간첩 누명벗은  
사나이



▲ 1967년 4월 10일 서울 장충단 공원에서 이수근을 위한 서울시민환영대회가 거창하게 열렸다. 악수를 나누는 여인은 영화배우 최은희이며 가운데 박수치는 남자는 당시의 서울 시장 김현옥이다. 이수근의 나이는 이때 42세이고 다른 두사람은 두살 연하인 40세였던 시절이다.

〈67년 4월 8일자 대한뉴스〉

『판문점에서 극적 탈출로 자유 대한의 품에 안긴 전 북한괴뢰 중앙통신 부사장 이수근씨는 자유 대한의 정치 경제가 발전되고 안정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탈출해왔다고 말하고 북한 괴뢰 경제 건설 7개년 계획은 기술자의 부족과 관리의 모순 그리고 전쟁 준비 관계로 완전히 실패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또 그들은 항상 평화통일을 간판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내일이라도 무력으로 남침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북한 괴뢰의 침략 근성을 규탄했습니다. 이어 북한괴뢰의 대남 간첩 투입에 대해 (육성 인용) “... 하루로 침투하는 것을 기본으로 돕니다. 인텔리 상층 정치계 인사가 아니라... 하루 침투가 그거이 날짜가 좀 걸리더라도 그거이 믿음성이 있어요. 지주, 자본가들하에서 고충을 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기본을 단단 말이예요...” 이어 이수근씨는 북쪽에 두고온 가족을 서울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전세계 선량한 어버이들에게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69년 2월 14일 대한뉴스〉

『이수근은 간첩이었습니다. 선량한 우리를 악랄하게 속인 이수근은 붉은 이리떼의 앞잡이였습니다. 자유의 땅 조국 대한을 그리워하는 북한 동포의 한사람인줄 알고 설마하던 국민의 눈을 속인 이수근은 간첩이었습니다. 붉은 야욕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교묘한 침투. 그 중 가장 저주할 수단으로 이 땅에 잠입한 간첩 이수근. 전 국민의 환영을 받던 때도 그놈은 간첩이었습니다. 결핵행진곡의 축복속에서도 그놈은 간첩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머리를 가발로 덮고 코밀에 수영을 달고 여권을 번조해서 북으로 뺄손이치려던 반역자는 잡히고 말았습니다. 악마의 탈을 쓴 민족반역자인줄 모르고 그를 환영했던 선량한 국민들은 이번에는 모두가

격분했습니다. (시인의 육성 인용) “아, 그놈이 그럴 수가 있어요 글썄, 그 멀쩡한 놈은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저 광화문 네거리에다 내놓고 공개 총살시켜야 마땅합니다.”』

대한뉴스는 공보처 산하 국립영상제작소에서 제작해 극장 상영용 기록영화로 틀어대던 영상 관보이다. 이미 오래전에 폐지됐지만 당시 대한뉴스가 불과 2년도 안되는 시차를 두고 이수근이라는 인물을 놓고 영웅시하다가 반역자로 묘사하며 말끝마다 “그놈은 간첩이었습니다.”를 반복하고 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자유대한의 품에 안긴 최고의 영웅에서 느닷없이 시민의 목소리까지 인용하며 공개 총살을 논할 지경에 이른 것일까. 정제된 표현의 뉴스 전달 내레이션에 ‘그놈’을 되풀이하고 ‘악랄’, ‘이리떼’, ‘저주’등의 격한 감정이 담긴 용어들을 마구잡이로 쏟아내고 있으니 간첩이면 간첩이지 무슨 천인공노할 죄를 지었는지 한번 살펴보자.

이수근(李穗根)은 1924년 황해도 서흥군 출신이다. 이곳 출신으로는 국무총리를 지내고 대선에서 두번 고배를 마신 이회창(1935년 ~ )씨가 있다. 이수근은 1946년 조선노동당에 입당해 20년간 기자로 잘 뻗어나가 김일성 수행기자까지 거친 후 ‘조선중앙통신’ 부사장이라는 고위직에 오른 대단한 인테리다.

얼마든지 호의호식하며 북한 상층부에서 행복하게 살 수도 있었을 그가 판문점에서 수습발의 총알을 피해 남쪽으로 탈출한 이유는 확실치 않다. 아무렴 대한뉴스에서 소개하고 있듯 남쪽 체제를 동경하고 북한 체제에 염증이 나서 온갖 호사스런 기득권을 포기하고 넘어왔을까 의문이며 이런 의문은 합리적인 의심에 바탕한다. 정확하게 짚어서 말할 수는 없으나 북측에서 제거되기 힘든 큰 과오를 저질렀을 것으로 보인다. 여하튼 그는 판문점에서 사전에 남쪽 기자에게 김새를 줬고 유엔군측 영국 준장 세단 차에 민첩하게 몸을 던져 정말 영화에나 나올 법한 극적 탈출에 성공한다. 북측 병사들이 마구잡이로 총알을 퍼부었지만 차 뒷좌석에 몸을 웅크리고 구사일생했고 이 장면은 당시 흑백TV시절 수백번도 더 틀어대 대부분의 가정에 TV가 없었어도 지나가다 이웃 잘사는 집을 방문해서라도 눈에 어어걸리던 모습이었다. 라디오는 아나운서가 숨넘어가듯 자지러지게 소식을 전하기 바빴다. 1967년 3월 22일 이야기다.

그런데 아무렴 이씨의 귀순은 박정희와 그의 부하들에게는 큰 호재였다. 63년 대선에서도 간신히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박통은 베트남 파병, 한일협정 등 어려운 난제를 해결하느라 힘들었고 67년 5월 6대 대선을 앞두고 다시 돌과구를 마련해야 재선에 성공하는 절실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난데없이 북한 최고 엘리트이자 정치적 거물 한명이 자발적으로 탈출해 남한으로 넘어왔으니 북한보다 남한의 체제가 우월하다는 선전용으로 활용하고 자신의 재선에도 큰 발판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정부는 그야말로 난리가 났다. 중앙정보부장 김형욱은 같은 황해도 동향인이랍시고 아주 살갑게 대했고 차관급 예우에 해당하는 특 1급 자리를 중앙정보부에 마련해 극진히 보살폈다. 하는 일은 주로 지방 순회 반공 강연이었으니 특 별한 일거리도 아니었다. 이듬해 9월 대학 여교수와 결혼도 했다. 그렇게 조용히 세인들의 관심에서 멀어져갔고 일반 국민들은 그가 그냥 아무일없이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알았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그는 서서히 무너져 가고 있었다. 원래가 지식인이었던데다가 자유분방한 성격이라 거의 강제로 앵무새처럼 뇌까려야 하는 반공 연사로서의 강연이 신물이 났던 것이다. 결국 자기는 자유를 찾아왔지만 자유가 아닌 체제 선전용 도구일 뿐이라는 허접한 존재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거기다가 중정 내부에서도 색안경을 끼고 감시의 눈초리



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 남쪽의 삶에 깊은 회의가 몰려왔다. 하기사 60년대이면 남쪽과 북쪽 모두 체제 우위를 선전하며 아주 험악한 냉전 분위기가 고조되던 때였으니 저쪽이 싫어 탈출했다 하더라도 이쪽도 그리 다르지 않다는 실상을 확연히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는 운명처럼 엮게 되는 처조카 배경옥(1969년 당시 29세) - 이름이 여자같지만 남자임 - 의 도움을 받아 제 3국으로 탈출하는 계기를 만든다. 중요한 점은 북한이 아니라 제 3국이다. 당연하다. 도로 북한가면 반역자로 총살밖에 더 당하겠는가. 스위스같은 중립국에서 글이나 쓰며 사상의 자유를 만끽하고 싶었던 것이 그의 유일한 소망이었다. 배경옥은 이씨의 북에 있는 부인의 조카로 서울에서 살고 있었다. 그는 당시 베트남에 기술자로 있었는데 여동생 결혼식때문에 잠시 한국에 들어왔다가 택시에 여권을 놓고 내리는 바람에 여권 재발급을 하던 차였다. 이를 알고 이씨는 배씨에게 이왕이면 자기한테 여권 하나 어떻게 마련해달라고 해서 이모부의 부탁인만큼 여행사를 통해 짝퐁 여권 하나를 마련해 준다.

그리고 기회를 노리다가 박동이 중정 초도순시를 온다고 직원들이 혼란한 틈을 타 재빨리 사무실을 피해 조카와 함께 같은 비행기를 타고 홍콩으로 일단 탈출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수근의 탈출 사실을 미국쪽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아주 신속하게 한국에 전했고 중정 요원들이 홍콩으로 들어닥쳤다. 홍콩 경찰은 한국에서 도망오고 뒤쫓아오는 이 해괴한 장면을 보고 나름대로 중립적인 태도로 임했다. 중정 요원은 추방하고 정치 망명을 원하는 이수근에게는 캄보디아로 갈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씨는 캄보디아로 일단 가서 준비를 한 후에 안전한 또다른 3국으로 이동하려는 계획이었다. 그런데 홍콩에서 캄보디아로 가는 비행기가 베트남을 경유해야 했던 것이 이씨에게는 참으로 알맞은 운명이었다.



▲ 이수근의 구속기소, 사형선고, 사형집행을 알리는 당시 일간지의 보도들. 그러나 기사 내용은 중앙정보 부가 고문 조작해 만들어낸 100% 거짓말에 근거한 황당무계한 내용들로 도배질되었다.

중간 기착지인 남베트남 사이공 공항에 머물던 기내에 중정 요원들이 올라타 격투가 벌어졌다. 남베트남 역시 극우 반공 국가라는 점에서 한국과 형제국같은 처지이었으니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이 가능했다. 당시 남베트남 대통령에게까지 연락이 가 비행기를 세우고 한국에서 온 중정 요원들이 이수근을 체포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한다. 서울을 탈출한 날이 1월 27일, 사이공 탄손누트 공항에서 체포된 때가 1월 31일이었으니 이수근의 제 2의 엑소더스는 이렇게 5일만에 막을 내렸고 이후는 굳이 묘사하지 않아도 상상이 충분히 갈 것이다.

2월 13일 중정은 이렇게 발표했다. “근질근 추적끝에 홍콩을 경유, 북한으로 가려던 이수근을 체포했다. 그는 위장귀순자이며 이중간첩이다.” 전부 거짓말이다. 근질근지도 않았고 북한으로 가려고도 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위장일 것도 없고 이중간첩일리는 더더욱 없는 인물 하나가 줄지에 악마같은 반역자로 둔갑되고 있었던 것이다. 딱 하나 맞는 것이 있다면 귀순자인 것은 사실이었다. 다만 남쪽으로 오고보니 후회막심인 귀순

자였을 뿐이었다.

저 발표를 접한 미국CIA는 콧웃음을 쳤다고 한다. 중정 내에서도 조작임을 알고 있는 직원이 후일에 다 고백해주고 있다.

처조카 배경옥도 공연히 한국 들어왔다가 이모부 한번 돕는다고 하다가 공범으로 몰려 11일동안 중정에서 모진 고문을 받는데 전기고문은 기본이며 11일을 단 한숨도 재우지 않고 알몸에 구타와 고문이 반복되자 차라리 죽기를 소원했다고 한다. 배경옥이 이지경으로 고문을 당했으니 이수근은 별도 묘사가 필요없겠다. 그에게는 지옥이 따로 없었을 것이다.

중정의 조작된 어처구니없는 증거물 중에는 김일성 앞으로 보내는 암호문도 있었다. 5월 10일의 1심 판결은 사형을 언도했으며 이에 대해 이씨는 항소하지 않았다. 아마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또 고문을 당하며 목숨 연명하기가 벅차고 정신적으로는 이미 무너질대로 무너져 삶에 대한 의욕조차 남아 있지 않았다. 그리고 불과 두달이 채 안된 7월 2일 사형이 집행됐다.

처조카 배경옥 역시 사형이었다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그리고 이후 20년으로 감형돼 꼬박 20년 세월의 형기를 다 채우고 89년에 출소했다. 20대에 들어간 사람이 50이 된 나이에 세상에 나온 것이다. 불행하기로 말하면 이수근보다 배경옥이 더 참담했다. 20년 형무소 생활 동안 그의 아내를 비롯한 가족과 친척들은 연좌제로 인한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출소 후 어릴 때 보고 한번도 못본 아들이 보고싶어 전화로 만나자고 했더니 아들은 “그냥 지금 살아왔던 대로 사시면 안되겠습니까?”라고 하더라. 역장이 무너져 내리며 아들인들 간첩 아빠를 둔 죄아닌 죄로 얼마나 고통의 세월을 보냈을까를 생각하니 감히 보자고 더 조르지 못했다. 그로부터 얼마 안있어 결혼을 앞둔 아들은 계곡에서 자살을 했다.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가 이수근 사건을 재조명해 철저한 진상을 조사한 끝에 이렇게 밝혔다. “중정이 이수근을 위장간첩으로 조작해 처형했다. 이 사건은 귀순자의 생명권이 박탈된 비인도적, 반민주적 인권유린 사건이다... 국가는 수사과정에서의 불법 감금, 자백에 의존한 무리한 기소 및 증거재판주의 위반 등에 대해 피해자들과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

배경옥씨는 과거사위의 이 판정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고 이듬해인 2008년 12월 자신의 무죄 선고를 받았다. 그런데 본인은 간첩 누명을 벗었으나 이모부 이수근은 어찌해볼 수가 없었다. 재심 청구의 주체는 당사자나 직계 가족 또는 검찰이 아니면 불가능한데 당사자는 이미 유명을 달리했고 가족이라고는 앞서 말한대로 풍비박산이 났으니 선뜻 나설 수도 없고 기댈 곳은 검찰이었다. 그러나 이후의 정권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라 검찰의 전향적 자세를 기대하기 힘들었다. 배씨가 이모부 재심을 검찰 직권으로 해달라고 수없이 청원했지만 들어주지 않았다. 그러다가 결국 이번 정권이 들어서 작년 9월 대검찰청 공안부에서 재심 청구를 했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올해 10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이수근의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이중간첩이네, 위장귀순자네 별명 누명을 쓰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간 이수근은 49년만에 간첩의 누명을 벗게 됐다.

그러면 뭐하나, 이 세상에 없는 것을...

TV에서 재심 판결이 나오며 빛바랜 흑백 영상으로 그를 다시 불러낸 당시의 모습을 보니 감회가 새로울 뿐 아니라 이수근마저도 조작된 간첩이었던 말인가 생각하니 당시의 정권이 저지른 잔혹성에 치가 떨린다.

차라리 귀순하지 말았으면 불편하나마 나은 삶이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깊어지는 우울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

# OKBA 지구협 회장 전화번호

## - 광역토론토 지구협회 -

- Etobicoke**  
회장 이두승 (416) 895 - 1277
- New Market**  
회장 금동진 (905) 836 - 6429
- North York**  
회장 김정렬 (416) 665 - 6709
- Peel**  
회장 이수봉 (905) 813 - 1333
- Richmond Hill**  
회장 김대용 (905) 471 - 8079
- Scarborough**  
회장 엄종호 (416) 759 - 4503
- Toronto East** GTA 지구협의회 의장 겸임  
회장 김종범 (416) 363 - 9404
- Toronto West**  
회장 김재숙 (416) 975 - 0365
- Weston & York**  
회장 조용상 (416) 604 - 3116

## - 남서부 지구협회 -

- Brant County**  
회장 김종학 (519) 756 - 0099
- Halton & Hamilton**  
회장 장은홍 (905) 679 - 4812
- London** 남서부 지구협의회 의장 겸임  
회장 오세정 (519) 432 - 6672
- Niagara Falls**  
회장 김흥기 (905) 354 - 1313
- Waterloo**  
회장 최상경 (519) 579 - 8130
- Windsor**  
회장 이응학 (519) 734 - 7111

## - 동북부 지구협회 -

- Durham**  
회장 이현식 (905) 579 - 2500
- Huronia**  
회장 진재원 (705) 487 - 2005
- Kingston**  
회장 이강정 (613) 967 - 9998
- Owen Sound**  
회장 허창훈 (519) 323 - 4311
- Peterborough**  
회장 홍성훈 (705) 652 - 6323

# www.okba.net

온라인을 통해 더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The screenshot shows the OKBA website interface. At the top, there's a navigation bar with '공지사항', '실형뉴스', '게시판', '실형뉴스PDF 보기', 'KBA협동조합 특별', and 'KBA협동조합 공동구매'. Below this is a large banner for 'OKBA와 친구해요!' (Be friends with OKBA!) with a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OPEN' (KakaoTalk Plus Friends Open) button. The main content area features several promotional tiles for 'FritoLay Special', 'Merchant Services', 'OKBA PROGRAM STORE', 'Moneris', and 'SOS SAVE OUR STORES'. A table lists various member benefits and programs, including '2018.2.25~3.24' and '2018년 정기회비'. At the bottom, there's a footer with '합회소개', '협회조직 / 협회정관 및 내규 / 회원가입 / 회원의 권리와 의무 / 지구협회소개 / 찾아오시는 길', and contact information for 175 THE WEST MALL, ETOBICOKE Ontario M9C 1C2.



# OKBA PROGRAM STORE

Strong Retailers' Network

- 독립편의점 네트워크 구성 중점
- 프로그램 스토어 전담팀 운영
- 가입 업소 직접 방문
- 문제점 및 업소운영에 대한 상담
- 각 업소에 맞는 운영안 제시
- POS 시스템의 운영으로 자료 축적을 통한 공급,유통 환경 개선







## ■ 협동조합

협동조합 사무실 ----- (416) 789-7544  
 169 The West Mall, Etobicoke  
 협동조합 웨스트몰지점 ----- (416) 867-1444  
 169-175 The West Mall, Etobicoke

## ■ 담배회사 및 관련업체

Imperial Tobacco Canada ----- (800) 379-7629  
 JTI MacDonald Corp ----- (800) 268-2068  
 Rothmans Benson & Hedges ----- (800) 387-8555  
 Kretek ----- (905) 625-1169  
 House of Horvath Inc. ----- (416) 534-4254  
 Scandinavian Tobacco ----- (866) 837-1807  
 Casa Cubana ----- (514) 737-0066  
 GVA Canada Inc ----- (416) 573-8085  
 National Smokeless Tobacco Co. ----- (519) 208-5138  
 Bic Inc ----- (416) 742-9173  
 Nibo Group Inc. ----- (905) 479-0022

## ■ 복권관련

AGCO (복권 판매 라이선스 관련) ----- (416) 326-8700  
 (800) 522-2876  
 Fax (416) 326-5555  
 OLG ----- (800) 387-0104

## ■ 음료

Coca Cola Bottling Company ----- (800) 241-2653  
 Pepsi Bottling Corp. ----- (905) 568-7909  
 (800) 387-8400  
 Nestle Waters Canada ----- (519) 763-9462  
 Lassonde ----- (905) 791-5300

## ■ 우유

SAPUTO(Neilson Dairy) ----- (800) 663-4724  
 Parmalat ----- (905) 829-0555  
 Sealtest / Natrel ----- (416) 442-2300

## ■ 스낵

Frito Lay Canada ----- (905) 460-2414  
 Old Dutch Foods Ltd. ----- (800) 387-2273  
 Krispy Kernels ----- (800) 461-7337  
 South Cove ----- (905) 829-3666

## ■ 초코렛 / 캔디

Nestle Chocolate ----- (800) 500-5634  
 Mars Canada Inc ----- (800) 565-0147  
 Hershey Canada Inc. ----- (800) 268-1304  
 Mondelez(Cadbury/Christie) ----- (855) 535-5648  
 Wrigley Canada ----- (416) 442-3298

## ■ 아이스크림

Nestle Ice Cream ----- (905) 458-3600  
 Ontario (800) 500-5634  
 Unilever Canada Inc ----- (866) 888-2775  
 Fruti Distributing ----- (866) 663-3231

## ■ ATM / Debit

TD Merchant Services ----- (888) 663-6634  
 Touch Cash ----- 1- (866) 391-3950  
 Moneris Solutions ----- 1- (877) 789-5335  
 1 Solution ----- 1- (888) 554-7355

## ■ 잡지

Metro News ----- (416) 285-2050  
 News Group ----- (905) 681-1113

## ■ 법률관련

변호사 이영동 ----- (905) 272-4339  
 변호사 박재현 ----- (905) 527-0202  
 Best Defence (아담 유) ----- (416) 739-8887

## ■ 금융 / 회계 / 재정 / 보험

Bank of Canada(위조지폐 관련문의) ----- (888) 513-8212  
 신한은행 ----- (416) 250-3550  
 외환은행 ----- (416) 222-5200  
 TD한인금융센터 ----- (416) 250-5855 (손종호 ex 231)  
 이방록 회계사 ----- (416) 221-2009  
 오중찬 보험 ----- (416) 602-7083  
 최창근 모기지 ----- (647) 928-7313  
 이은진 회계사 ----- (416) 802-3870

## ■ 언론사

한국일보 ----- (416) 787-1111  
 중앙일보 ----- (416) 736-0736  
 Globe and Mail ----- (800) 387-5400  
 National Post ----- (416) 383-2500  
 Toronto Star ----- (416) 367-4500  
 Toronto Sun ----- (800) 668-0786

## ■ 장비 설치 수리

종합캐쉬레지스터 ----- (416) 622-2255  
 프로캐쉬레지스터 ----- (416) 804-4075  
 Cool Air Cleaning ----- (416) 224-0020  
 Hi Cool Tech ----- (416) 909-7114

## ■ 기타

Kocom ----- (416) 769-3532  
 DSC Digital System ----- (416) 255-6549  
 Label & Bag Depot ----- (416) 432-2937  
 Ubix Communications ----- (416) 492-6022 (Ex.221)  
 David Health International ----- (647) 726-1010  
 허바헬스 ----- (416) 435-5754  
 365 Wholesale ----- (416) 931-9002  
 Butterfly Fashion ----- (416) 785-5999  
 The Best Inventory Service ----- (905) 359-8560  
 원도매상 ----- (416) 661-6664



# 2018.11.4~2018.12.1

Frito Lay Canada에서는 2018년 11월 4일부터 2018년 12월 1일까지 클럽 골드 회원, 플래티넘 회원, 다이아몬드 회원에게 스페셜을 실시하오니 방문하는 판매 담당자 또는 드라이버에게 문의하세요. 4주 한정기간 동안 프로모션이 있으니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스페셜 상품들은 **OKBA프로그램 스토어**에도 적용됩니다.



Lays XL  
2/\$6



- 최소 주문량 \$50
- 다양한 제품 오더 가능 (Single Serve, Take Home, Convenience Food, etc)
- 직접 재고 관리 가능
- 필요할 때마다 주문 가능 (무료 배달/주문 후 이틀안에 배달 완료)
- 충분한 유효기간 (창고에서 직접 포장)
- Single Serve는 Snack to you를 통해 주문 가능합니다.

Online at [snackstoyoucanada.ca](http://snackstoyoucanada.ca) or Phone 1-866-404-8881